

메가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556호

Tuesday, May 19 2026 A

2026 중간선거 여론조사 '공화당' 약세로 나와

유권자 50% 민주당 지지
응답자 39% 공화당 지지

2026년 중간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유권자 선호도에서 초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발표된 뉴욕타임스/시애틀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오는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39%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11%는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다섯 개 주를 비롯해 전국의 등록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이다.

이번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공화당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려는 데 있어 직면한 정치적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은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히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공화-민주 양당이 의회 장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자금 모금, 홍보 활동, 조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데 진행됐다.

공화당은 이민, 범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경제 문제와 의료, 선거



애넌데일 한인타운에 있는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표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

구 재조정에 포커스를 맞췄다. 민주당은 2026년 하원 탈환을 위해 전국 여러 주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선거구 재조정 시도에 강력 대응하며 유권자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근소한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어 주요 표결에서 이탈 표를 얻을 여지가 거의 없으며, 다가오는 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 투표에서 민주당이 두 자릿수 우위를 보이는 것은 무소속 유권자와 중도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지만, 분석가들은 선거를 이렇게 앞두고 실시하는 전국 여론조사가 최종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선호도를 밝히지 않았다.

김성환 기자

이란전쟁 불확실성에 국제유가 급등

WTI 3% ↑, 108달러대
4월 7일 이후 최고가

18일(현지시간) 미국-이란 종전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10달러로 전장보다 2.60%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66달러로 전장보다 3.07% 상승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각각 이달 4일과 지난달 7일 이후 최고가로 마감했다.

이란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건넨



지만, 미국은 이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에 충분치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 이란의 '역제안'이 이전과 비교할 때 형식적인 진전만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에너지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원유 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봉쇄로 상업용 원유 재고가 급격히 고갈되고 있으며, 현재 몇 주 치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분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향후 몇 주 안에 미-이란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고 호르무즈 통행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설정한 '기본'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든 주요 경제권의 국내 총생산(GDP) 전망치 하향 조정, 유럽 일부 지역의 완만한 경기 침체, 영국과 유로존의 5~6% 수준의 물가 상승,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전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주권 재검 전담반 가동

승인 사례 역추적 단속
추방 대상자 50명 분류

국토안보부(DHS)가 기존 영주권 승인 사례를 다시 검증하는 전담 조직을 꾸렸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NYT)는 DHS가 전국 영주권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범죄 기록과 영주권 취득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수한 내부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최소 50명의 영주권자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영주권 사례 가운데 지난 7월 기준 약 2890건에 대한 재검토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80%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로 분류됐다. 재검토 대상에는 성폭행, 가정폭력, 음주운전(DUI),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들이 포함됐다.

또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이민 사기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민 당국은 영주권자 재검을 통해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다만 이민법상 영주권 박탈이나 추방은 행정기관 판단만으로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원 심리와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송윤서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매핑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넌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8 ~ 6/12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트럼프 “이란, 아무 것도 안 남을 것” ... 재확전 초읽기

“더 나은 협상안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공격할 것” 이스라엘과 이란 공격 재개 논의

한 달 넘게 가까스로 눌러놓은 이란 전쟁의 불씨가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모두 군사적 선택지를 꺼내 들며 사실상 재확전의 문턱으로 들어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무력 행사를 예고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로 공격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전문 고조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중동 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을 겨냥한 연쇄 타격이다. UAE 정부는 이날 서쪽 국경 방향에서 자국 영공으로 진입한 드론 3기 가운데 2기를 요격했고, 나머지 1기가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외곽의 전력 발전기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

다. 인명 피해나 방사성 물질 유출은 없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전력이 자체 기술로 수출해 건설한 아랍권 최초의 상업용 원전으로 현재 한국 직원 300여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바라카 원전이 공격 대상이 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 같은 날 사우디 국방부도 이라크 영공에서 자국으로 들어온 드론 3대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UAE와 사우디를 겨냥한 타격의 배후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방사능 유출 등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전 타격은 정유시설, 항만 공격 등과는 차원이 다른 만큼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군사적 보복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공격 소식이 전해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시계는 재깍거리고 있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



이란 고속정 격파 시 영상도 올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SNS에 올린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미군 전투기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고속정을 손쉽게 격파할 수 있다는 조롱 섞인 위협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루스소셜 캡처]

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전안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이다. 그는 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안보 관계자들과 대이란 군사옵션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도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 재개를 염두에 두고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각료회의를 소집해 전투 상황

을 점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방위 압박에 이란은 새로운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 세계 인터넷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저 통신 케이블이다. 이란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즐파가리 대변인은 지난주 X(옛 트위터)에 “(호르무즈해협) 인터넷 케이블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란에 호르무즈해협 해저 케이블 이용료를 내고 케이블 수리와 유지 보수 권한도 이란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르무즈해협 해저에는 유럽과 아시아, 페르시아만을 잇는 주요 대륙 간 통신망이 지나간다. 이란이 소형 잠수함이나 수중 드론으로 케이블을 파손할 경우 금융·군사 통신·AI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UAE 휴투르 연구소의 무스타파 아흐메드 수석 연구원은 “여러 대륙에 걸쳐 연쇄적인 ‘디지털 재앙’을 촉발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다. 이근평 기자

가족이민 대기기간 짧아졌다

가족이민 문호가 계속해서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5월에 이어 6월 문호에서도 가족이민 문호가 진전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5월과 같아 동결됐지만,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4년 8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하는 흐름을 보였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는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8년 1월 1일에서 2018년 3월 22일로 3개월 가까이 앞당겨졌다.

2B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7년 5월 22일에서 2017년 9월 22일로 4개월 진전했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 역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2009년 9월 1일에서 2009년 12월 22일로 진전됐다. 가족이민 4순위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08년 9월 15일에서 2008년 11월 8일로 진전됐다.

지난 4월 대폭 진전됐던 취업이민 문호는 5월 문호에서 대

2026년 6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가족이민	1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018년 10월 1일 (2018년 10월 1일)
	2A 2025년 1월 1일 (2024년 8월 1일)	오픈 (오픈)
	2B 2017년 9월 22일 (2017년 5월 22일)	2018년 3월 22일 (2018년 1월 1일)
	3 2012년 2월 15일 (2012년 2월 15일)	2012년 12월 8일 (2012년 12월 8일)
취업이민	4 2008년 11월 8일 (2008년 9월 15일)	2009년 12월 22일 (2009년 9월 1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오픈 (오픈)	오픈 (오픈)
	3 2024년 6월 1일 (2024년 6월 1일)	오픈 (오픈)
	4 2022년 2월 1일 (2022년 2월 1일)	2022년 8월 1일 (2022년 8월 1일)
5 2022년 7월 15일 (2022년 7월 15일)	2023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5 오픈 (오픈)	오픈 (오픈)	

출처: 2026년 5월 우선일자, 자료: 국무부

부분 동결됐고, 6월 문호도 동결된 모습을 보였다. 5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3개월 진전했지만, 6월 문호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5순위(투자이민)의 경우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오픈 상태다. 김은별 기자

‘대만 무기거래’ 도 테이블 올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규정하면서 외교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5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1월 미 의회에서 승인됐지만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에 대해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그건 중국에 달려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협상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같은 날 방중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 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취재진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란 기자의 질문엔 “1982년은 꽤 오래된 과거”라며 “시 주석이 먼저 그 문제

를 꺼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 때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1982년의 ‘6대 보장’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보다.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미국의 방어 무기 제공 의무마저 무력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 요인이다.

이번 트럼프의 메시지가 한국에 던지는 충격파는 적지 않다. 미국의 방위 공약이 자국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장 외교가에선 트럼프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전격 선언했던 전례가 회자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층 강조하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이나 북-미 대화 국면에서 주한미군 역시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지원 기자

워싱턴 날씨 (°F)

20일(수)	95-61	23일(토)	59-53
21일(목)	63-54	24일(일)	65-59
22일(금)	58-51	25일(월)	75-64

5월 19일(화) 97-7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p>센터빌 중앙상호교회 근처 5 에어커 전용주택 \$1,050,000 특정</p> <p>최신 수영장, 차고 2, 방 3, 욕 3</p>	<p>레스턴 싱글홈 셀러 구매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특정</p> <p>차고 2, 방 5, 욕 3, 워드아웃 부엌</p>	<p>현역 럭셔리 타운홈 \$850,000 특정</p> <p>차고 3, 방 3, 욕 3</p>
---	--	---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 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licsystems.com/k1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licsystems.com

워싱턴은 벌써 '한여름'... 폭염·열사병 주의요망

19·20일 한낮 96도대
VA 엘리노 확률 '상승'

워싱턴 지역에 강력한 더위가 몰아치고 있다. 낮 기온 96도대(화씨)에서 밤 기온은 70도대에서 머무는 데, 여름과 같은 폭염은 2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레이건 국립공항에서 5월18일에 기록된 최고 기온은 1877년의 96도였고, 델레스 국제공항의 최고 기온 기록은 1987년에 세워진 91도인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20일은 기온이 낮 최고 94도까지 오르는 매우 더운 날이 되겠지만, 폭염은 이날로 마무리되고, 캐나다 지역으로부터 찬

공기 전선이 내려오면서 오후나 밤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강한 뇌우가 예상된다.

다시 60-70도 안팎을 오르내리게 될 21일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는데, 이같은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건강관리에 각별한 조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태평양의 상황이 예상보다 일찍 강력한 엘니뇨 기상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버지니아 지역에 겨울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이상 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기후 예측센터는 지난 15일 엘니뇨 현상이 이번 달에 발생할 확률은 82%, 2027년 2월까지 지속될 확률은 96%로 추산했



워싱턴 지역은 연일 95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 민간 기상 회사인 '에큐웨더'에 의하면,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버지니아주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4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서부 지역은 50-60%까지 오를 수도 있다. 강수량은 버지니아 동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40-50%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나머지 지역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에큐웨더' 기상학자들은 버지니아 북동부와 중부 대서양 연안 지역은 폭염과 함께 극지적인 뇌우로 인한 홍수 가능성을 동반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고, 중서부와 오하이오 밸리 지역은 폭염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한 기자

전망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NOAA의 5월부터 7월까지 강수량

"메릴랜드주 첫 한인 상원의원 탄생시킨다"

마크장 범한인후원회 발족
성과로 말하는 준비된 후보

메릴랜드주 역사상 최초의 한인 상원의원 배출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메릴랜드주 하원에서 실력과 정책으로 검증받은 한인 마크장 하원의원(민주)의 상원의원 도전에 한인 사회가 하나로 뭉쳐 전례 없는 결집력을 과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공동후원회를 결성한 한인 사회는 마크장 후보의 주상원 입성을 한 마음으로 응원하며 아낌 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공동후원회장은 장두석 아리랑USA공동체 대표, 안수화 메릴랜드한인회장, 김용하 몽고메리한인회장, 강고은 미한기업인전선포럼 회장, 김정남 회장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개인과 지역 개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장두석 공동후원회장은 "우리 손으로 메릴랜드주 첫 한인 상원의원



승리를 다짐하는 한인공동후원회, 가운데가 마크장 하원의원.

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상원의원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인 사회의 정치적 위상을 결정짓는 시험대"라고 강조하며, 한인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마크 장은 2014년 메릴랜드주 최초의 한인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현재 3선에 성공했으며, 실력과 정책 추진력이 워낙 뛰어나 한·주류사회에서 각광

받는 정치인이다. 장 의원이 도전장을 낸 메릴랜드 제 32지구는 한인들이 상당수 거주하는 글렌버니, 하노버, 랜드롬, 서번, 로럴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예비선거는 오는 6월23일 열릴 예정이고, 조기투표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예비선거서 승리하면 11월 본선거서 공화당 후보와 맞붙는다. 김성한 기자

맥클린한국학교, 봄학기 종강식 성료

맥클린한국학교(교장 이은애)는 16일 2026년 봄학기 종강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은애 교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은 학교와 가정의 함께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공동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발표회에서는 유치부부터 성인반까지 모든 학급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학부모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발표회 후에는 PTA가 정성껏 준비

한 불고기, 잡채, 떡 등 한국 음식을 모두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또한 한편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만든 작품과 활동물이 전시되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시 공간은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로 종강식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한편, 맥클린한국학교는 오는 8월 22일 가을학기 개강식을 열고 새 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www.koreanschool.onlin, 문의: 571-235-8997, 김성한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립대사 명방과 교수에게 사사
- 서울중의대학 중의약학사
- 임상 25년 경험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iorientalmedicine.clinic/

GEICO is now available in our agency.

We're excited to offer our local insurance expertise along with the benefits of GEICO.

- Competitive rates and savings
- Outstanding claims experience
- Easy access to great coverage

Loca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agents of the GEICO companies.

Call to get a GEICO quote today!

김원기 종합보험
(301) 962-8300
(301) 526-7000(c)
won@wkkinc.com



Get more with **GEICO**

살기 힘든 아파트, 한인타운에 몰려... 5곳 중 2곳

“물 끊기고 바퀴벌레까지”
4235개 건물서 1만3000건
건물 이력 미리 확인해야

LA시가 ‘최악의 임대주택 리스트’를 공개했다.

특히 한인타운은 LA시에서 주택 위반 신고가 집중된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문제 임대주택 상위 100곳’을 포함한 주택법 위반 사례 및 신고 대시보드를 14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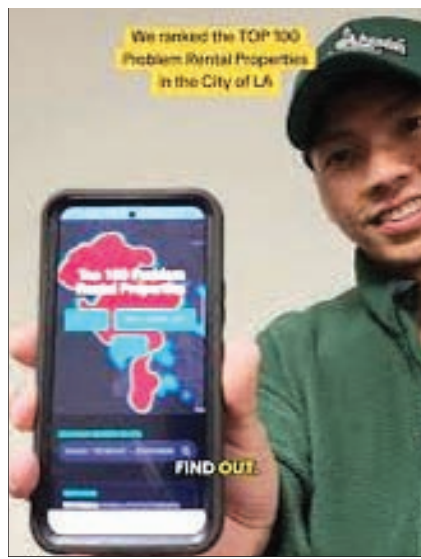
해당 시스템은 LA시 주택국(LAHD)에 접수된 렌트안정화조례, 정당화 퇴거 사유 조례,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위반 사례 등을 주소별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현재 4만

4084개 프로퍼티, 11만5083건의 사례가 등록돼 있다.

본지가 한인타운 주요 6개 우편번호를 분석한 결과, 총 4235개 프로퍼티에서 1만3628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90019 지역 1401개 프로퍼티·3652건 ▶90006 지역 1086개 프로퍼티·3598건 ▶90005 지역 446개 프로퍼티·1871건 ▶90020 지역 394개 프로퍼티·1592건 ▶90004 지역 889개 프로퍼티·2804건 ▶90010 지역 19개 프로퍼티·111건 등이었다.

한인타운에 사는 박지수(29)씨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 계약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물이 자주 끊기거나 바퀴벌레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건물 측이 바로 대응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세입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LA시 15개 지구 가운데 한인타운



신고 사이트를 소개하는 메히아. (인스타그램 캡처)

이 포함된 10지구는 총 4827개 프로퍼티에서 1만3901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돼 시 전체에서 가장 많았다.

LA시가 공개한 ‘위반 상위 100개 주소’ 명단에도 한인타운 건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편번호 기준으로는 ▶90004(5곳) ▶90005(2곳) ▶90006(4곳) ▶90020(4곳) ▶90019(2곳) 등 17곳의 아파트 및 건물이 포함됐다. LA 내 최악의 임대 주택 5곳 중 약 1곳이 한인타운에 있는 셈이다.

일례로 한인타운 내 웨스트 7가 3189번지 건물은 총 65건의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 미등록 유닛, 불법 퇴거, 세입자 비과실 퇴거 보상금 미지급, 불법 렌트 인상, 서비스 축소, 온라인 결제 강요 등의 신고가 포함됐다.

사우스 베렌도 스트리트 715번지 건물도 총 56건의 위반 사례가 기록됐다. 불법 렌트 인상과 서비스 축소, 불법 퇴거 관련 신고가 집중됐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이든 백 회장은 “한인타운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많아 관리 문제와 위생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럭셔리 아파트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낡은 건물 비중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냉장고와 스토브 등 기본 생활 설비 관련 규정도 강화됐는데 이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히아 감사관은 “세입자 괴롭힘과 불법 퇴거 신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강력한 단속이나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세입자들이 건물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 접수 및 대시보드 확인은 감사관실 웹사이트(prp.lacontroller.app)에서 할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V·개솔린차 중고값 평준화

1월 가격차 평균 1376불
전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44%가 2만5000불 이하
반납 리스차 매물 증가로



중고 전기차(EV)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는 개솔린 차량과 가격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업체 콕스오토모티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중고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평균 가격 차이는 1376달러였다. 이는 전달 2591달러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중고 전기차 매물의 약 44%는 2만5000달러 이하 가격에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배경은 지난해 9월 종료된 7500달러 EV 크레딧 혜택을 받은 초기 전기차들의 리스 반납 물량이 증가하면서다.

처음 EV 크레딧 혜택이 적용된 2022년 무렵 계약한 차들이 가장 일반적인 3년 리스를 마치고 지난해 말부터 중고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것. 업계는 이처럼 매물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가격 협상력이 커지면서 중고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신차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할인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등은 지난 18개월 동안 전기차 가격 인하와 저금리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 신차 거래 가격이 내리면서 기존 중고차 가격 경쟁력도 약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2만5000달러 이하 다양한 중고 전기차가 대거 매물로 나오고 있어 전기차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초기형 테슬라 모델 3 일부 모델 역시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을 중심으로 2만5000달러 이하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 아이오닉 역시 1만6000~2만10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훈식 기자

한인 우버기사 살해 10대 석방

불기소 처분, 수사 새 국면



조씨의 장례식 안내문.

시카고에서 한인 우버 운전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10대 용의자가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됐던 용의자가 불기소 석방되면서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시카고 경찰은 재스 조(38)씨 총격 살인 사건과 관련해 17세 고등학생을 체포해 조사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 후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석방 이유나 수사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조씨의 장례식은 공교롭게도 용의자가 석방된 날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은 지난 7월 시카고 이스트 가필드파크 지역 노스 호먼 애비뉴 200블록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씨는 우버 차량을 운전 중이었으며,

뒷좌석에는 승객 다마리온 존슨(18)군이 타고 있었다. 수사당국은 회색 SUV 차량이 조씨 차량 옆으로 접근한 뒤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한길 기자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술취한 여성 차량 들이받아

샌타모니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던 30대 여성이 차량과 충돌한 뒤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자전거 역시 캘리포니아주법상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BC뉴스는 샌타모니카 경찰이 지난주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37세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14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쯤 4가와 샌타모니카 블러바드 인근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혼다 시빅 차량과 충돌한 뒤 운전자와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후 오션 애비뉴와 피코 블

라바드 인근에서 그 여성을 붙 체포했다. 여성은 경범죄인 음주 상태 자전거 운전 혐의로 입건된 뒤 출석 통지서를 받고 풀려났다.

샌타모니카 경찰은 “가주에서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로 공공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자전거도 음주 상태에서는 균형감과 판단력이 떨어져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한인 노부부 동반 자살 LA카운티 검시소 확인

최근 롤랜드하이츠 지역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인 노부부의 사인이 동반 자살로 확인됐다.

17일 LA카운티 검시소에 따르면 상박(84)씨의 사인은 목매에 의한 자살로 확인됐다. 사망 시각은 지난 10일 오전 0시 40분쯤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사망을 확인했다.

박씨의 아내 춘 박(78)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시소는 사망 다음 날인 11일 아내 박씨의 사인을 먼저 공개했으나, 상 박씨의 사인에 대해서는 공개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LA카운티세리프국 살인과의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며 두 사람의 사망이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경준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칼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1만5천불 약, 온라인에선 40불

뒤틀린 약값 구조 도마 위 375배 고무줄 가격 논란

월 1만5000달러짜리 암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같은 성분의 약품으로 40달러에 구매한 사례가 알려지며 왜곡된 약값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디펜던트는 15일 캔자스주에 사는 데이비 로즈(50)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9년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진단을 받은 뒤 치료제 ‘이매티닙(imatinib-사진)’을 복용해왔다. 이 약은 병의 진행을 늦추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대표적인 혈액암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보험 적용을 받아 약값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 랜디 로즈가 2년 전 직장을 옮긴 뒤 새 건강보험에서 해당 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부부는 약값으로 매달 1만3000~1만5000달러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장기간 치료가 이어질 경우 은퇴 자금과 자산까지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렸다.

랜디 로즈는 저렴한 약값을 찾아 나섰다. 2022년 설립한 온라인 약국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를 통해 같은 약을 월 40달러 미만에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중 가격의 약 375분의 1 수준이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된 이매티닙 30일분 가격은 39.75달러였다. 제조원가 25.65달러에 약국 운영비와 배송비 등이 더해진 금액이다. 반면 일반 소매 약가는 약 9657달러로 표시됐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

어지는 배경에는 복잡한 약값 유통 구조가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일반 약국과 보험 시스템에서는 제약회사와 보험사,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 여러 중간 업체가 개입하면서 약값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PBM이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서 리베이트 협상을 주도하면서 약값이 왜곡된다는 분석이다. 보험이 없거나 커버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은 높은 약값을 그대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코스트 플러스 드럭스는 제약사와 직접 가격을 협상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사는 약원가에 15% 정도의 수수료와 배송비만 추가해 판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같은 성분의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이라도 구매 경로와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수백 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약값 비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영 기자

오렌지, 차터 도시 전환 추진

중세 등 자치권 확대 가능 재정 위기 해소 방안 부각

캐시 타블라리스 시의원은 시 재정 과다 가능성 해소 방안으로 차터 도시 전환을 최근 제안했다.

그는 시가 예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터 도시가 되는 것이 재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오렌지와 같은 일반법 도시는 거주 정부의 행정 규정을 따르지만, 애너하임, 어바인, 헌팅턴비치와 같은 차터 도시는 세금 부과나 공공 계약 입찰 등 일부 분야에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갖고 있다.

타블라리스 시의원이 제시한 차터(시 헌장) 초안에는 객실 11개 이상 호텔에 14%, 10개 이하 호텔에 10%의 숙박세를 각각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오렌지 시의 호텔세는 객실 수와 관계없이 10%다.

또 유틸리티, 인터넷, 전화 기업 대상 4% 프랜차이즈 세금을 신설하고, 200면 이상 주차장에 14% 주차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기금의 3분의 2를 경찰, 소방, 시 코드 단속에 배정하는 규정도 제시됐다.

타블라리스는 호텔세, 주차세, 프랜차이즈 세 등을 통해 약 1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렌지 시는 지난 2024년 11월 주민투표에 재정난 해소를 위한 판매세 인상을 회부했지만, 이 안은 부결됐다. 이후 시가 고용한 외부 컨설팅 업체는 지난해 여름, 오렌지 시가 수년 내 과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의회가 검토 중인 차터 도시 전환안은 이르면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한국산 팥이버섯 528박스 리콜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 구매처 반품 시 전액 환불

한국산 팥이버섯이 리콜된다.

L.A.다운타운 인근 버는 소제농산물 수입·유통업체 ‘IQ Produce’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팥이버섯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리콜 대상은 ‘IQ Produce Enoki Mushroom 150g’ 제품(사진) 총 528박스다. 녹색 라벨 제품 포장에 ‘한국산(Product of Korea)’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제조 식번호는 ‘UI775’다. 해당 제품은 소매 유통점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FDA)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제품 샘플 검사 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검출되면서 실시됐다.

현재까지 관련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리스테리아균은 어린이와 노약자, 면



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고열, 심한 두통, 목 경직,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임신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처에 반품해 전액 환불 받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323-889-9301)로 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가주민 91만명 주택보험료 또 오른다

파머스, 가을부터 평균 1.5% ↑ 보험 규제 개혁안 통과 영향

가주에서 두 번째로 큰 주택보험사인 파머스보험이 전체 보험료를 인상한다.

파머스 보험은 최근 가주의 약 91만 5000명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올 가을부터 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통과된 보험 규제 개혁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최근 수년간 가주에서 대형 산불 피해와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신규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주 정부는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을 막고 고위험 지역 주민들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해당 개혁안은 보험사들이 산불 위

험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새 규정에 따라 파머스 보험은 향후 2년 동안 산불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이른바 ‘보험 취약지역’에서 최소 5500건의 신규 보험 계약을 인수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은 이에 따른 리스크를 기존 가입자들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유훈식 기자

인앤아웃, 어바인에 신규 매장 추가

인앤아웃이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어바인에 신규 매장을 추가 오픈한다.

인앤아웃버거는 최근 여러 주에서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남

가주의 새로운 매장이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매장은 그레이트파크 네이버후드 내 개발 중인 12에이커 규모 복합 상

업시설 ‘더 캐노피(The Canopy-7900 Great Park Blvd)’에 입점한다.

개장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으며 UC 어바인 캠퍼스 드라이브 매장에 이어 어바인 2호점이 된다.

송영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락주 등)
웨이민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주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www.immediatehousecalls.com

Jiho Choi, M.D.
(NPI: 1225149859)

**미국 여행 방문 시
미 전역 무비자 & 무보험 환자 환영
전화 치료와 처방 (\$110+)**

Phone / Text / Photo / Kakao Talk
301-338-8119

가주 예산, AI 붐에 겨우 적자 면했다

뉴섬, 3500억불 수정 예산안

대권 의식해 균형에 신경
대규모 복지 확대는 자제
세수추계에 신뢰성 약해

개빈 뉴섬(사진) 가주 지사가 14일 총 3499억 달러의 2026~2027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을 내놨다. 2028년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 임기 마지막 예산안이다. 재정 안정과 핵심 서비스 유지에 중점을 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규 복지 사업을 확대하던 과거와 달리 균형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가주 정부는 올해 초 수십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지만 인공지능(AI) 산업과 증시의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흑자를 이어가면서 오는 2028년 7월까지 구조적 적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세수 추계의 신뢰도

다. 뉴섬은 2022년에도 세수가 반짝 증가하자 3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975억 달러의 흑자를 선언했다.

실제 세수는 예산을 크게 밑돌아 2028년까지 1650억 달러가 부족한 상황(의회 입법분석국)이다. 주정부는 적자를 메우려 긴급준비금을 털어 썼다. 주 긴급준비금은 2022년 760억 달러로 전국 최대였으나 지금은 그 반도 안된다.



이번에도 세수 추계를 AI 호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 축소 가능성도 변수다. 특히 메디칼과 이민·환경 예산이 그렇다. 그런데도 낙관적 흑자 전망을 내놓은 것은 대선을 의식한 결과일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신규 사업보다 기존 공공서비스 유지와 예비비 확보에 무게를 뒀다. 경기 둔화에 대비한 잉여금 유보 계정에 97억 달러를 예치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예산은 기존보다 24억 달러(43%) 늘어난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는 문해력 코치와 수학 지원 인력을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5억 달러를 투입한다.

보건 분야에는 연방 지원 종료 이후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 3억 달러가 포함됐

다. 또 신규 소기업이 내는 유한책임회사(LLC) 수수료를 낮춰 최대 50%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후·산불 대응 예산도 늘어난다. 주정부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주택 재건 부담을 덜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재난 복구 기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복지 확대안은 빠졌다. 대신 불법체류자의 메디칼 월 보험료를 현행 30달러에서 최대 50달러로 올리고, 일부 디지털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새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 세액공제도 축소된다.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은 없다는 뉴섬의 공약과는 모순된 내용이다. 예산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가주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새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다. 송원서 기자

게이츠 재단, 4.8조원대
MS 주식 전량 매각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 세운 자선·연구지원 단체인 게이츠 재단이 주요 자산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미 금융 매체 배런스 17일 게이츠 재단이 올해 1분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770만주를, 약 32억 달러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게이츠가 세우고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재무적 관계가 설립 약 25년 만에 완전히 끊기게 됐다.

게이츠 재단은 2000년 빌 게이츠와 전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질병과 기아, 불평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재단 자산 규모가 75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민간 재단이다. 그간 자산의 상당 부분은 빌 게이츠가 기부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었다.

‘북미 최대 통근철도’ 32년 만에 파업

LIRR노조 임금 협상 결렬
하루 30만명 출근길 불편

북미 최대 규모의 통근 철도 시스템인 뉴욕의 롱아일랜드 철도(LIRR) 노동 조합이 3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 운행 중단 사태가 17일 이틀째 이어졌다.

LIRR은 뉴욕 맨해튼과 롱아일랜드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통근 철도로, 맨해튼 펜스테이션과 그랜드센트럴역 등을 중심으로 평일 하루 약 25만~30만 명이 이용한다.

LIRR 운영 주체인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전날 “파업으로 LIRR 운행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MTA는 LIRR를 대체할 교통편은 없으며,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

가 아니면 이동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라고 당부했다.

MTA는 노조 지도부와 수개월간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임금과 의료 보험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기관사, 정비사 등 LIRR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5개 주요 노조 소속 약 3500명이 16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갔다. LIRR 노조의 파업은 이틀간 이어졌던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3년 가까이 임금 인상이 없었으며, 물가상승률에 맞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MTA는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요금 인상이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본격적인 혼란은 출근길이 재개되

는 오늘(18일)부터 예상된다. 파업이 지속될 경우 출퇴근길 맨해튼 진입로와 고속도로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MTA는 지하철역을 잇는 제한적인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내놨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감사의장실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 손실이 하루 최대 6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최대 연휴 중 하나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 대이동을 앞두고 있어 관광·유통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간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드림 포 올, 최대 3000명 수혜

올해 신청자 1만4000명
6개월 내 선정 여부 통보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청이 첫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는 ‘드림 포 올(DFA)’ 프로그램에 1만4000명이 신청한 가운데 최대 3000명이 수혜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LA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택금융청은 올해 DFA에 배정된 예산이 1억5000만~2억 달러로 최소 1500명에서 최대 3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6개월 내 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DFA 신청자 수는 직전 시행 때보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당시에는 약 1만8000명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4000명 감소했다.

DFA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구매가의 최대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수혜자가 주택 구매 절차에 들어가 에스크로를 개설할 때 제공된다.

수혜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뒤 90일 안에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이 어려울 경우 90일 연장

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가 발생하면 대기자 명단에 오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차 추첨이 진행된다.

DFA 지원금이 무상 보조금은 아니다. 수혜자가 DFA를 통해 구매한 주택을 향후 매각할 경우, 주정부는 지원했던 다운페이먼트 금액과 주택 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회수한다. 주택금융청은 이러한 구조가 향후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에릭 존슨 주택금융청 공보관은 지난 14일 공개된 2026~2027 회계연도 캘리포니아주 수정 예산안에 DFA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DFA 선정 대상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 구매자다. 또 가구 구성원 중 최소 1명의 부모가 미국 내에서 7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소득 기준도 적용되며, LA카운티의 경우 신청 가능 소득 상한선은 16만8000달러다. 김경준 기자



80센트 버거에 복세통

지난 15일 창립 80주년을 맞은 오리저널 타미스 버거가 대표 메뉴인 오리저널 칠리 버거를 80센트에 판매하자 고객들이 몰리며 긴 줄이 이어졌다. 행사는 가주와 네바다주 지역 32개 매장에서 진행됐다.

김상진 기자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문의
Tel. 703-281-9660

왓츠 앤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진짜 이 가격이 가능해요?

비즈니스 오너 / 개인사업자라면

AT&T 비즈니스 무제한 플랜

라인당

\$15 /월

* 무제한 Advanced plan 4라인 이상 기준



휴대폰 잔여 할부금 때문에 옮겨오시기 망설이신다구요? 라인당 최대 \$80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대상** 타통신사 이용중인 비즈니스 오너 또는 개인사업자(1099, 우버/리프트 드라이버, 핸디맨, 부동산 에이전트 등)
- 조건** 현재 사용중인 폰 그대로 타통신사에서 AT&T로 통신사 이동
- 추가혜택** 현재 통신사에 휴대폰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라인당 최대 \$800 지원
- 플랜**

	4 라인	5 라인	6 라인	주요 혜택(라인당)
무제한 Advanced Plan	\$ 60/월	\$ 75/월	\$ 90/월	무제한 데이터/ 통화/ 문자, 핫스팟(100GB)
무제한 Premium Plan	\$ 100/월	\$ 125/월	\$ 150/월	무제한 데이터/ 통화/ 문자, 핫스팟(300GB) 무료 해외로밍 7일 제공, 국제전화 50% 할인, 태블릿/워치 플랜 50% 할인

인터넷요금 얼마씩 내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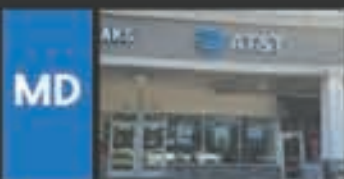
AT&T 비즈니스 인터넷

\$30 /월

- 장비(Equipment)까지 포함 월 \$30
- 설치기사 필요없이 누구나 간단하게 설치
- 비가와도 눈이 와도 끊김없는 인터넷
- POS, 카드단말기 등 유선 연결 및 무선 Wifi 연결



NEW 영업시간 월 | 9:30 - 7:30 일 | 12:00 - 6:00



락빌 / 실버스프링 (Aspen Hill 쇼핑센터)

301.910.7700
13615 Connecticut Ave. Silver Spring, MD 20906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410.465.0218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페어팩스 (99 Ranch Market 옆)

703.591.2442
1075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상기 프로모션은 비즈니스 고객 대상에 한함. ● 상기 모바일 플랜 가격은 24개월간 제공 기준. ● 상기 비즈니스 인터넷 가격은 AT&T 모바일 사용자 기준, Autopay, Paperless bill 신청 할인 적용된 가격임. ● TAX 및 기타 FEE는 별도. ● 상기 프로모션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 또는 종료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구인

*데이케어 직원 모집
*한국 간호사 모집

프렌즈 데이케어 그랜드 오픈

프렌즈 데이케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인 **5월 25일 (월)**에
드디어 문을 엽니다.
그 동안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픈 하우스: 2026년 5월 21일 (목)
오전 11시~오후 4시



프렌즈 데이케어

8003 Forbes Place, Springfield, VA 22151
문의: 1-800-350-3147, 571-424-7527, 7528

영업시간

월 ~ 토 (주 6일)
오전 8시~오후 2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자치단체연합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가 18일 전북 군산 출근길 인사 중 "정청래 지도부는 곧 무너진다"고 말했다. [사진 김관영 캠프]

“김관영 분열 조장” “정청래 측근 공천” ... 전북 심상찮다

‘정청래 재선 바로미터’ 전북 민심 민주당 이원택-당계명 김관영 접전 친청vs반청 대결에 당내 관심 집중 “김관영, 도민 안 살피고 돈 뿌려” “정 대표, 전북이 핫바지로 보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전북 민심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무소속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 1995년 현행 지방선거제가 도입된 이래 전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선증을 놓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엔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각 제명된 현역지사 신분의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단

순히 한 곳을 더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한술밥을 먹던 두 후보가 ‘친(親)정청래(이원택) 후보’ 대 ‘반(反)정청래(김관영) 후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전북지사 선거는 정청래 대표의 대표 연임 가능성을 미리 엿보는 바로미터”라고 했다.

실제 18일 전북 군산·익산·전주에서 만난 도민들의 민심은 엇갈렸다. 김 후보 지지자들은 “억울한 컷오프(공천배제)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산의 근로자 고영식(61)씨는 “정청래가 측근을 위해 제명을 강행했다”며 “전북을 핫바지로 보느냐”고 했다. 사업가인 최지원(54)씨는 지난달 8일 중앙당이 ‘협이 없음’으로 종결한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더 큰 죄를 진 이원택이 승승장구하는 게 맞느냐”며 “정청래는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 후보의 ‘현금 살포’ 의혹과 도정 운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조희수(77)씨는 “현직 지사가 어려운 도민을 살피지는 못할망정 돈을 뿌리느냐”고 비판했다.

군산시 수송동 주민 송진성(33)씨는 “김관영은 (2023년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컸던) 잼버리라는 최악의 국제행사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올림픽 유치 공약도 잼버리 꼴 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민주당 공식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서동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

는 조현(64)씨는 “달당한 놈은 배신자다. 김관영이 전북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이원택이 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 남부시장 상인 이재찬(76)씨는 “무소속이 당선되면 당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친청파’ 이미지와 낮은 인지도가 단점으로 꼽혔다. 전북대생 장서연(22)씨는 “정청래는 (부산 시장에서) 아이에게 ‘오빠라 불러 보라’고 한 사람”이라며 “김수성이 부족한 보스 밑에 있는 이 후보도 의심된다”고 했다. 택시기사 이성인(49)씨는 “이원택이 누구냐는 시민이 많다”고 했다.

‘고시 3관왕’(공인회계사·행정고시·사법시험) 출신의 김 후보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내

세우며 인물론을 강조했다. 군산 롯데마트(수성동)에서 만난 김 후보는 “정 대표의 사당화에 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청래 지도부가 물러나면 민주당에 복당하고, 연속성 있게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주시의원, 전북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한 이 후보는 이날 취재진에게 ‘풀뿌리 행정 경험’과 민주당 조직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만난 이 후보는 “김 후보가 ‘피해자 코스프레’로 지지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무소속 후보가 예산·정책을 추진해낼 수 있느냐”고 했다.

이번 전북지사 선거엔 양정무(국민의힘)·백승재(진보당)·김성수(무소속) 후보도 뛰고 있다.

강보현·이찬규 기자

지표만 보면 여당 압승인데... 곳곳서 ‘막판집전’ 들리는 이유

여야 엇갈리는 지방판세 예측 민주당 “후보등록 직후 앞서면 승리” 이 대통령 60% 지지율도 자신감 국힘 “숨은 보수층, 막판 결집 중” 현역 출마 많아 인물경쟁 기대도

보름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여야 격전지 판세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서는 만큼 압도적 승리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열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격전지에선 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① 후보 등록 직후 앞서 후보가 승리=민주당이 격전지 승리를 자신하는 건 역대 지방선거의 ‘필승 조건’을 두루 충족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여론조사에서 앞서 후보가 대체로 승리한 전례에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본투표를 보름 앞둔 시점에 진행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56.5%)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32.4%)를 25.1%포인트 차로 앞섰다. 오 후보는 결국 59.05% 득표하며 당선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약 보름 전 조사에서 당시 박원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56.4%)가 크게 앞섰고, 실제 52.79%를 득표하며 승리했다.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여론조사 흐름도 견조하다.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를 받아 지난 11~14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43%,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2%를 기록해 정 후보가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2주 전 같은 조사와 동일했다.

② 대통령 지지율 높으면 집권 초 여당 승리=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르는 지방선거는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공식도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다. 대표적 전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년1개월 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다. 선거 2주 전 실시한 한 국갤럽 전례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 지지율은 75%였다. 민주당은 해당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2022년 지방선거

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율이 52% 수준이었다. 하지만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허니문 선거’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17곳 중 12곳에서 이겼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60% 안팎으로 견고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 격전지 선거의 핵심인 중도·보수 표를 잘 끌어안고 있다”고 했다.

③ 뒤늦게 결집하는 보수층과 ‘인물 경쟁’ 구도=역대 지방선거의 필승 공식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승리가 난망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특수성에 기대고 있다. 우선 숨은 보수층의 막판 결집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분에 빠지면서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와해

됐었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뒤늦게 결집 중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실제 격차가 줄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29일에 이어 지난 16~17일 진행된 코리아리서치·MBC의 서울시장 선거 조사(무선전화 면접 방식)에서 정 후보(48%→43%)와 오 후보(32%→35%)의 격차(16%포인트→8%포인트)는 줄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동원 풀리컴 대표는 “자동응답(ARS) 조사에선 향후 지지율 격차가 다소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16곳의 시도지사 선거 중 11곳에 현역 시도지사가 출마한 만큼 ‘인물 경쟁’ 구도에 대한 기대도 존재한다. 특히 부동산·공소 취소 등 선거 직전 터진 휘발성 큰 이슈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영익 기자

“한국에 집 있는데... 세금 관찮으세요?”

양도·상속·증여 제대로 준비하기



대면 세미나

- 5/20 수요일 10 am est
- High Calling Financial office

줌(ZOOM) 세미나

- 6/9 화요일 8 pm est

등록 QR



Karen Ahn 703-688-2645

Speaker



강영진
-주미 대사관 국제관



High Calling Financial

703-688-2645

10505 Judicial Dr. #300 Fairfax, VA 22030

karenahn@highcallingfinancial.com

https://www.highcallingfinancial.com

재정 전문가 캐런 안이 현재 재무 점검 → 세금 절감 → 보험과 은퇴 준비 → 상속 계획까지 인생 전 과정을 돕는 종합 재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업천국 유럽도 핵심산업 멈추면 정부 등판

글로벌 선진국 파업사례 보니 친노조 바이든 철도파업 강제중단 프랑스, 정유노조에 업무복귀 조치 스페인인 필수서비스 유지 명령

전문가 "반도체, 산업전반에 큰 영향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 충분히 갖춰"

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언급하는 '긴급조정권(30일 파업 중지, 정부 중재)'은 과연 대응일까. 글로벌 주요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핵심 산업의 파업 국면에서 정부의 강제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치'였던 경우가 다수였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노조 활동이 활발한 서구권 국가에서조차 노사 자율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국가 경제를 이유로 들어 개입해 왔다.

2022년 미국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대표적이다. 물류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철도 및 항공 분규 해결을 위해 1926년에 제정한 '철도 노동

법(Railway Labor Act)'을 발동해 노조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의회에는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을 노조에 강제하는 조치를 담은 '노사 합의 강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유니언(Union·노조) 조'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친(親)노조 성향의 바이든이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가까스로 파업을 막아낼 수 있었다. WSJ는 "철도 파업의 결과는 이념을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이었다. 바이든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짚었다.

바이든은 2023년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당시에도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파업을 막지 못했다. 당시 노조가 큰 폭의 임금 인상안을 거머쥐었지만, 결국 경쟁력 저하로 대규모 구조조정이란 후폭풍을 맞아야 했다.

2002년에는 미국 서부 29개 항만이 노사 분규로 폐쇄됐다. 하루 피해액이 20억 달러(약 3조원)에 달했다. 사태가 2주째로 접어들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947년 제정한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을 꺼내 들었다. 파업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할

경우 정부가 80일간 냉각기와 업무 복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강성 노조의 파업이 격렬한 유럽에서도 국가 공급망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핵심 제조업이 마비될 뻔 여지없이 정부가 등판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토탈에너지 등 정유사 노조가 1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공공질서와 에너지 공급 안정을 이유로 '업무복귀 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거부한 핵심 인력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로 일터에 복귀시켰다. 노조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업무복귀 명령은 적법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은 "파업은 헌법상 권리지만, 규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도 비슷한 시기에 자국 최대 에너지 기업 렉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헌법 28조 2항(공통체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보장 조치)을 근거로 파업 기간에도 최소 20%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인력을 강제 근무하도록 하는 '필수 서비스 유지 명령'을 발동했다. 스페인 정부는 "산업 생태계 파괴와 안보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조기 타협을 압박했다.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022년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정주공 공장 파업 사태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와 임금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

세계 각국 정부의 개입이 주로 철도·에너지 등 인프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반도체 산업을 동격으로 놓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국내 노동법상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범위에는 철도·항공·수도·전기·가스·병원 등만 포함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반도체는 국가 수출과 공급망,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지만 지방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 규정을 완화하고, 신규 인력 확보를 지원해 공장 운영을 정상화했다.

[서터스톡]

삼전 노조 향한 대통령의 경고장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존중돼야" 삼전 노조에 "과유불급 물극필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기본권을 중시해온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라고도 했다. 노동자 권리만큼이나 기업·주주 권리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의 문제점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한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노동자 이익 균점권은 1962년 5차 개헌 이후 자취를 감춘 기본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헌법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영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 조정위원을 맡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 위원장(왼쪽부터)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협상 첫날 회의를 마친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엔 그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유불급(過猶不及), 물극필반(物極必反·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수요에 따른 초호황으로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이 1분기에 53조7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뒀더라도, 전체 공동체를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초 청와대는 정부의 직접 개입은 피하고, 노사 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4일 "만약 파업이 발

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초강수를 꺼내는 동안에도, 김영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양측을 오가며 대화 재개를 설득한 이유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일(21일)이 임박하자, 청와대도 최근 삼성전자 파업의 경제적인 파장과 함께 노사 양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노조가 사측 제시안(영업이익 10% 성과급)보다 유리했던 중앙노동위 중재안(영업이익 12%)까지 거부하면서 고집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영업이익엔 위험 비용을 감수한 투자자 몫도 당연히 포함되고, 세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제도화하는 것 자체가 공적 부담을 회피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주장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경우, 마치 법인세 인상과 같은 결과로 귀결돼 ▶첨단 산업 경쟁력 약화 ▶외국인 투자 위축 ▶국내 기업의 이탈 등 부작용이 생길 거란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이 대통령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면 파업은 30일간 중단된다.

정부의 대화 압박에 삼성전자 노사는 다시한번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 단독조정인으로 나선 박수근 중노위원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업은 안 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에 조금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19일까지 2차 사후조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핵심 신청 항목인 ▶안전 보호 시설 유지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 방지 작업 수행 ▶시설 점검 금지 등을 모두 인용하면서, 노조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예정된 총파업 일정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현석·최모란·김경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ion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ion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octo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o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비엔나콘도	스프링필드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클리프턴 싱글홈
\$339,000	\$645,000	\$595,000	\$1,120,000
방1 / 화1+Den,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마루, 넓은 덩 가스, 풀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방3 / 화2.55 / 차고1 /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한 로케이션	방3 / 화3.5 / 2 Assigned, 지붕, 부엌(2024), P Bath (2026), HVAC 등등	방 4 / 화 3.5, 집 전체 수리 많이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GROUP,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이 대통령 “5·18, 헌법 수록 최선… 여야 협력 간곡히 부탁”

옛 전남도청 광장서 기념식 참석
“오월 영령이 12월 3일 구해준 것”
시민 거친 반발 속 기념식은 장동혁
“대통령도 재판받는 게 5·18 정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장동혁은 차렷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둘째부터) 등 여야 지도부 등 참석자들이 18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3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헌을 시도했다. 부마항쟁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골자였지만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

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며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었던 ‘대동세상’은 2024년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 중에 유족이 없는 상태로 사망해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양창근 열사 얘기를 꺼내며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오월의 소년은 등록 신청

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기념식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복원을 마치고 이날 새로 개관한 옛 전남도청을 둘러봤다. 5·18 당시 시민과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계엄군에게 저항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에서 마지막 가두방송을 했

던 박영순씨도 만났다. 박씨는 이 대통령을 보고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지 모른다”면서 눈물을 쏟아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2024년) 12월 3일에 이 방송을 따라 똑같이 했다. 힘 내시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안공항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희생자 분향소에 참배하고, 유족들로부터 건의문을 건네받았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했다. 장 대표는 기념식 뒤 페이스북에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5·18정신”이라며 “본인 재판을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5·18광장에서 읽는 기념사. 단 한번도 박수를 칠 수 없었다”고 썼다.

오전 10시40분쯤 장 대표가 5·18민주광장에 도착하자 일부 시민은 “여기 왜 왔냐. 집 팔고 오라” “내란당”이라고 소리쳤고, 거친 욕설을 내뿜기도 했다. 장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면서 오른손을 볼끈 쥐고 흐느리는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차렷 자세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류효림 기자

“다카이치 총리 환영” 오늘 한·일 정상회담, 들뜬 안동

하회마을 등 경호·행사 준비 분주

지난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 남안동나들목(IC)을 통과해 안동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 곳곳에 전에 보이지 않던 현수막들이 눈에 띄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님 안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를 축

하합니다’ 등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방문을 반기는 내용이었다. 안동 시내로 들어서자 환영 현수막들이 더 많이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19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1월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후 4개월 만이다. 방문단 등이 머무르게 될 안동시 성곡동 호철 근처에서는 경찰 버스와 순찰차 등 차량 수십 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경북경찰청과 안동경찰서를 비롯한 6개 경찰서는 18일 오전에 기해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갑호 비상’은 소속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각종 행사가 이뤄지는 하회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정상회담 막바지 체비가 더욱 분주해지는 분위기였다. 하회마을 안에서는 경호·행사 관계자들이 동선을 점검하거나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안동시민 과수정(40)씨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美)가 살

아있는 안동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동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오랜만이다.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2005년 ‘아버지 부시’인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009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안동을 방문해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관람하고 병산서원을 방문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주주들 “파업 땀 소송”… 학계 “영업익에 성과급 연동은 배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HD현대까지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영 성과 배분 논의에서 소외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주주권 침해와 기업 가치 훼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민경권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성과급 제도화는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이익의 N%가 성과급으로 제도화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노조가 파업 시에는 주주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 파업에 돌입할 경우

최대 30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복구까지 3주가량 소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가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파업이 현실화하

면 (정부가) 즉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들의 문제 제기는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로 귀결된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자원인데, 이를 근로자 성과급으로 이전하면 미래 투자와 주주환원 자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측이 성과급 제도화를 단독으로 결

정하는 건 주주의 재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원 주주행동연구원장(세종대 교수)은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주주권 논의는 정부의 경제 철학을 비판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으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면서다. 이날 개장 직후 급락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88% 오른 28만1000원에 마감했다.

김경미·박유미·오효정 기자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언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시장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피건 나을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높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4월 - 10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2233 N Underwood St, Falls Church, VA	6/1 입주가능	\$10,000 2020년에 새로 지은 싱글 홈. Haycock ES - Longfellow MS - McLean HS
5280 Julie Star Dr, Centreville, VA 20120	5/5 입주가능 Coming Soon	\$3,300 교통/생활/학교/안전한 인기있는 타운하우스 단지, 방 3, 욕실 3.5, Nice Owner
2302 Tanglevale Dr, Vienna, VA	5/1 입주가능	\$4,900 평화로운 동네 싱글하우스, 방 4, 욕실 2.5, 이쁜 정원, Flint Hill ES, Thoreau MS, Madison HS
8370 Greensboro Dr, McLean, VA	6/1 입주예정 PENDING	\$3,400 사랑하는 우리 교민 2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793 Brentridge St, Vienna, VA	5/1 입주예정 PENDING	\$4,800 주재원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48 McLean Mews Ct, McLean, VA 22101	4/21 입주예정 GATED	주재원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바로 연결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GATED	주재원 (3년)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세력권 분할 나선 시진핑, 무원칙 개인외교 일관한 트럼프

박원근의 퍼스펙티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중국은 미국을 겁탈하고 있다.” “미·중 관계는 더 큰 변영, 협력, 행복의 미래를 만들 기회다.”

상반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다. 전자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의 연설이고, 후자는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때 만난 견해이다. 극과 극을 오가던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사실상 미국과 대등한 G2 반열에 올려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향해 거침이 없었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소환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은 역사상 17번째 투키디데스 함정이며, 과거 사례 통계상 75%의 확률로 전쟁으로 이어졌다.

“세계 양분, 패권 나누자”

시진핑이 트럼프 면전에서 이 개념을 꺼낸 건 명확한 하나의 메시지를 염두에 둔 듯하다. ‘우리는 지금 투키디데스 함정 앞에 있다. 역사적으로 이 함정에 빠지면 전쟁이 난다. 그 함정을 피하려면 중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뜻이다. 즉,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며 강력한 지위를 인정하라는 요구다.

시 주석이 만찬사에서 내놓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美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남해(中南海) 순일재(純一齋)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가-MAGA)은 얼마든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언급도 의미심장하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2049년까지 중국을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이른바 ‘중국의 꿈(中國夢)’이다. 마가의 본질은 미국 자체에 집중하고 사회적 이해가 없는 지역의 개입을 중단하는 ‘선택적 고립주의’다. 그 린란드를 포함한 서반구에서 절대적 영향권 유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해 패권을 나누자는 것이다. 미국은 서반구,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각각의 영향권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2013년 이래 시 주석이 미국 정상을 만나면 반복하던 “광활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미국은 동태평양, 중국은 서태평양을 각자 관할하자는 식의 세력권 분할 구상이다.

미국과의 경쟁의사 밝힌 중국

중국은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내세웠다. 중국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협력을 주축으로 하는 긍정적 안정, 적당한 경쟁을 수반하는 건전한 안정, 관리 가능한 이견을 동반하는 항구적 안정, 그리고 평화를 약속하는 지속적 안정을 의미한다.

이런 중국의 주장은 이전과 차별화되는 자신감의 발로다. 2012년 시진핑이 제시했던 ‘신형 대국 관계’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이 주장도 미국과 중국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은 것이지만, 미·중 경쟁 자체를 가능한 부정하고 상호 존중과 이익만 강조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신형 대국 관계는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이번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경쟁을 현실로 인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다. 과거 신형 대국 관계가 양국의 공식 합의 문서로 채택되지 못했던 것과 달리,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공식 정상회담에서 언급되고 중국 외교부 성명에 명시됐다는 점에서 그만큼 현실 정치에 투영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중 전략 사라진 트럼프

중국이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대 전략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찰시키려 한 것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보이지 않았다. 떠오른 강대국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나 정책이 없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어려움, 이로 인한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 트럼프의 극도로 개인화된 국제관계 인식이 겹치며 ‘빈손 회담’ 논란을 키웠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중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트럼프의 지지율은 3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전쟁 이전보다 두 배나 될 기쁨값에 분노한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을 30%로 끌어내린 결과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잘 포장해서 자신의 승리로 선포해 미국 유권자에 다

가서야 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번 “환상적인 무역협정”을 도출했다며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 미국산 석유·에너지·대두를 구매한다고 선전했다.

트럼프는 중국을 비판하는 대신 시진핑 주석에 대해 “나의 친구”, “위대한 지도자”, “따뜻한 사람”이라 불렀다. 트럼프 1기 때 시진핑을 “파산한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당 주석”이라 격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논란을 키웠다. 이미 출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시 주석은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나는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던졌다.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수립된 타이완 관계법 원칙에 따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지켜왔다. 트럼프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도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과 규범을 수시로 무시하고, 가치와 체제가 달라도 강한 힘을 지닌 지도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트럼프의 특성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G2 반열에 공식적으로 올라서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긴 호흡으로 전략적 관계를 정립하려는 시진핑의 중국과 단기적 이해에 치중하는 트럼프의 미국 사이의 경쟁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매번 만남에서 시진핑은 한 발씩 더 전진하려 할 것이고, 트럼프는 원칙 없는 개인 외교로 이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지금과 같이 미국이 전략적 일관성을 잃고 물러선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는 이유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전셋집으로 10년 동안 산 후 최초 입주 시 확정된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전셋집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보다 달콤한 말이 또 있을까. 최근 전국 곳곳에서 확산 중인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바로 이 절박함을 파고든다. 문제는 그 달콤한 약속 뒤에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삼키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점이다.

서민 피눈물나는 10년 민간임대 사기, 대책 절실하다

한 부동산 시행사는 2024년 말 경기 광주 역세권에 1900가구 규모의 10년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대대적인 회원 모집에 나섰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평당 800만원대의 전셋값으로 10년 동안 거주한 뒤 최초 입주 시 정한 가격으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치솟는 집값에 좌절하던 무주택자들에게 “절호의 내 집 마련

기회”처럼 들렸을 것이다. 시행사는 안전장치도 강조했다. 가입비 6000만원(3000만원은 시행사가 대출알선)은 부동산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그 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홍보했다. 가입비는 사업부지 매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이 말을 믿고 6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사업은 사실상 공중분해 상태다. 시행사는 사업관련 인허가는 물론 단 한 평의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회원들과 연락까지 끊긴 상태다. 일부 회원들은 가입비 반환 소송을 벌여 승소했지만, 정작 돈을 관리한다

던 무궁화신탁은 반환할 자금조차 없다고 한다. 가입비 상당액이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소비자들이 믿었던 ‘안전장치’는 허상이었던 셈이다. 신탁회사는 단순 자금관리 계약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HUG 보증 역시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에야 가능한 절차였다. 문제는 이런 신종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함중선 선임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수잔 김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우리말 바꾸기

‘시리다’? ‘시렵다’?

‘겨울’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노래가 있다. “손이 시려워 땀! 발이 시려워 땀!”으로 시작하는 ‘겨울바람’이라는 동요다.

이 동요 가사에서와 같이 많은 이가 “장갑을 끼는데도 손이 시려워 혼났다” “퇴근길에 버스를 오래 기다렸더니 발이 너무 시려웠다” 등처럼 ‘시렵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뭍의 한 부분이 찬 기운으로 인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차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시렵다’가 아닌 ‘시리다’가 바른 표현이다. 우리말에 ‘가렵다, 두렵다, 마렵다, 어렵다’와 같이 ‘~렵다’로 끝나는 말이 많다 보니 ‘시렵다’도 맞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시렵다’를 ‘시리다’의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렵고, 시렵도록, 시려워, 시렵지, 시려운, 시려우니, 시려우면, 시렵더라, 시려웠다’ 등은 모두 ‘시렵다’를 활용한 표현이므로, ‘시리고, 시리도록, 시리어(시려), 시리지, 시린, 시리니, 시리면, 시리더라, 시리었다(시렸다)’와 같이 ‘시리다’를 활용한 표현으로 고쳐 써야 한다.

따라서 위 예문 역시 “장갑을 끼는데도 손이 시리어 혼났다” “퇴근길에 버스를 오래 기다렸더니 발이 너무 시렸다”와 같이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양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말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양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없는 현실



최인성
경제부 국장

은 무섭기도 하지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묵인했을 것이다. 지난해 집에 폐도독이 들었던 한 분은 갖고 있던 권총이 도난당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것을 봤다. 도난당한 총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총기 소지와 구매가 허락되지 않은 문화에서 살던 한인들이 자기 무장의 권리가 보장되는 미국에 와서 현지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 자신을 보호할 수단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번 텍사스 사건의 경우처럼 무기는 방어 목적보다는 오히려 공격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숨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여론 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총기 사고(자살, 살인, 사고, 공권력 총격)로 숨진

사람이 무려 4만4000여 명에 달한다. 총은 아이와 어른, 성별, 국적을 따지지 않고 피해자를 만든다. 특히 집에서 방치된 총기를 갖고 놀다 오발 사고가 나거나, 학교에 가져가 친구를 위협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가장 후진적인 사고 형태가 아닌가 싶다. 이는 온전히 어른들의 책임이며 곧 시스템의 문제다.

만약 범죄자들이 이런 극단의 폭력 수단을 소유할 수 없었다면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래서 연방과 주 정부들은 총기 구매자들의 범죄 기록도 조회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인지도 꼼꼼히 본다. 하지만 사고는 항상 일어난다. 꼭 수정한 법 2조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자기 무장’을 신성한 권리로 간주한다. 국가가 안전을 제공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 또는 방어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는 것이다.

총을 살 수 있고, 감정적 억제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겹친다면 텍사스 사건 같은 범죄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수록 우리 사회는 총기 관련 사건·사고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야침에

걸음이 증명하는 시간



김윤희
수필가

을 옮길수록 호흡은 짧아지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진다. 평지에 길들여진 근육들이 낯선 산길과 가파른 경사 앞에서 놀란 듯 비명을 지르는 것만 같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려다보니 도시가 한 눈에 펼쳐진다. 산하리를 따라 이어진 풍경 속에서 어느새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와 있음을 실감한다. 몇 분이나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지만, 일행의 발걸음에 뒤처질까 거친 숨을 삼키며 다시 몸을 일으킨다.

묵묵히 발을 내딛다 보니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고 공기가 달라졌다. 아득하지만 했던 정상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마지막 몇 걸음은 몸보다 마음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다. 숨은 가빠지고 심장은 쿵쿵 두드러듯 요란하게 똥다. 그때, 한참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팀이 어느새 우리를 스치듯 앞질러 간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는 그들의 발걸

음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긴장을 삼킨다. 마침내 정상에 섰다. 먼저 도착한 이들과 뒤섞인 그곳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하다. 하늘은 손에 닿을 듯 낮게 내려와 있고, 멀리 내려다본 도시의 건물들은 손바닥 위 모형처럼 작아 보인다. 숨이 풀리듯 터져 나오는 순간, 몸 전체가 서서히 이완된다.

그때였다. 시선이 한쪽에 멈췄다. 우리를 스쳐 지나간 이들은 은빛 머리의 시니어들이었다. 그중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여든여섯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같은 길을 걸어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들의 걸음은 가벼웠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숫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설명 없이 그것을 넘어선다. 오래 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몸에서 남는다는 것을 그들의 발걸음이 보여주어 있었다.

그제야 보았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그 위에 어떤 선택을 살아왔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하루하루의 습관이 결국 한 사람의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이 삶의 결을 만든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의 걸음 속에 섞여 있다. 그것은 이름도 없이, 이미 내 걸음 옆을 함께 지나고 있었다.

<p>1. 찬들리 하이싱글 \$1,379,000</p> <p>방5, 화4.5, 차고2, 콘택, 포플라트리 층층, 최고 학교, 장관리, 고급 새 지붕 (2018) 및 HVAC 시스템 (2019), 싱크, 스토브 (싱기내제기 교체), 미대, 반경비 (1026), 인바, 인바, 전장 맨, 주방 완공기 교체, 수동 커튼 블라인드 (냉장고, 전자레인지, 쿡탑, 더블 오븐 / 2018 - 2026) 바닥재 업그레이드 (침실 및 지하 카펫, 지하 침실 LVT 바닥)</p>	<p>6.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p> <p>1베이크리 스투스,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루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p> <p>아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p>	<p>황계실 571-239-6054</p> <p>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p> <p>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상고·상가</p> <p>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p>
<p>2. 헌돈 콘도 \$579,000</p> <p>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p>	<p>4.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p> <p>게인스빌 레이크 매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7. 알디 싱글 SOLD \$869,000</p> <p>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채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p>
<p>3.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 \$390,000</p> <p>방2, 화2, 풀린 파우치, 센터빌 고, 교통 중심</p>	<p>5.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p> <p>Sold</p> <p>1. Haymarket 55+ Villa 방3, 화3.5 차고 2 2. 매니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방4, 화3.5 차고 2 \$750,000</p>	<p>8. 알링턴 아미네이비 콘도 \$345,000</p> <p>방1, 화1, 2000년, 700 sqft, DC 근교 교통요지</p>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쿨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3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민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KOREAN AIR DELTA AIR PREMI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Wonderful TOUR 2026 Yearly Schedule

05/21~06/03	(연말)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3699+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5/26~06/05	시그니처 서유럽	10박 11일	\$4090+항공
06/05~06/18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06/08~06/18	북유럽 4개국 마감	10박 11일	\$49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 9일	\$4590+항공
06/09~06/19	시그니처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9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6/16~06/29	시그니처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990+항공
06/21~06/30	고품질 고국일주 2차(영어)	9박 10일	\$2990+항공
06/24~07/05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07/01~07/06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마감	5박 6일	\$2290(항공포함)
07/03~07/06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6890+항공
08/01~08/10	아이스랜드&스코틀랜드&노르웨이 크루즈	9박 10일	\$3650+항공
08/04~08/17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3박 14일	\$5990+항공
08/07~08/17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3~08/20	프리미엄 알래스카 일주	7박 8일	\$2490+항공
08/21~08/28	알래스카 크루즈 1차 마감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8/28~09/04	알래스카 크루즈 2차 마감	7박 8일	\$2190(항공포함/인사이드)
09/04~09/07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10~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5~09/25	고품질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3~10/03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3190+항공
09/28~10/11	독일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09/29~10/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29~10/06	정통 동유럽	7박 8일	\$2990+항공
10/05~10/12	발칸 크로아티아	7박 8일	\$2990+항공
10/06~10/16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590+항공
10/08~10/17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380 마감 \$1680(오션 마감)
10/08~10/18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3~10/23	고품질 고국일주 4차 마감	10박 11일	\$2990+항공
10/13~10/23	시그니처 서유럽	10박 11일	\$4090+항공
10/15~10/28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20~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2290+항공
10/20~10/30	고품질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4~11/05	호주 피지 뉴질랜드	12박 13일	\$3799+항공
10/27~11/06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9	지중해 크루즈	12박 13일	\$3490+항공(인사이드) \$3990+항공(오션뷰)
11/03~11/14	이집트&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03~11/15	이집트&요르단	12박 13일	\$3299+항공
11/18~11/29	파타고니아	11박 12일	\$9599+항공
11/25~11/29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2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02/23~03/10/27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10/08~10/17

\$1380(인) **마감** \$1680(오션 **마감**)

전문 가이드 인솔자 동행합니다.
볼티모어-메사추세츠-메인주-뉴 브런스윅-노바 스코시아-볼티모어

스위스 알프스

6/9~6/17 | 8박 9일

\$4,590+항공

정통 서유럽

영국/프랑스/스위스/이태리 유럽의 핵심 도시들을 한번에 여행할 수 있는 기회!

6/10~6/20 | 10박 11일
9/10~9/20

\$3,590+항공

캐나다 록키

독립기념일 여름방학 특선

캠거리 직항으로 비행기를 갈아타는 피곤함을 주지 않습니다.

7/1 **마감** 5박 6일
8/7~8/12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빙하-해안-내륙-국립공원을 잇는 매일 다른 풍경, 매일 쌓이는 감동의 안전일주

8/13~8/20 | 7박 8일

\$2,4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9/23~10/3 | 10박 11일

\$3,190+항공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독일 등 유럽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

9/29~10/6 | 7박 8일

\$2,9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9/29~10/12 | 13박 14일

\$4,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6~10/16 | 10박 11일

\$3,590+항공

메모리얼데이 특선

5/23 **레지워스&나이아가라**

워킹스글렌 2박3일, \$750

5/24 **뉴욕&롱우드가든**

1박2일, \$450

도시와 자연을 함께 즐기는 알찬 일정
뉴욕 핵심 관광과 아름다운 정원 투어

5/22 **스모키마운틴**

3박4일, \$1090

미 남부 최고의 자연 절경
스모키마운틴 국립공원 완전 정복 투어

2026 성급

여호수아

+아미쉬마켓 당일

단체 문의 환영

6/4(화), 6/25
7/16, 8/6
8/27, 9/17

\$199

11/03~11/14	이집트&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03~11/15	이집트&요르단	12박 13일	\$3299+항공
11/18~11/29	파타고니아	11박 12일	\$9599+항공
11/25~11/29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2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02/23~03/10/27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한국관광공사 원더풀투어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제주포함) \$2990+항공 | 8박 9일 (내륙관광) \$2490+항공

2차 06/21~06/30 (영어) **여행지** 인천/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경동진/강릉/속초/김포/제주

3차 09/15~09/25 **고국여행에 일본여행/동남아 연합투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차 10/13~10/22 **마감** 동경 (일출발) 3박 4일 \$1249+항공

5차 10/20~10/30 동경&오사카 (화출발) 3박 4일 \$1249+항공

동경&오사카 (화출발) 5박 6일 | \$2039+항공

TOGETHER in KOREA 동남아 연합투어

한국어 투어(2인 이상 출발)

3박5일	방콕/파타야 \$50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999+항공
3박5일	대방 \$509+항공
3박5일	나트랑/달랏 \$509+항공
3박4일	대만 \$1049+항공
3박5일	싱가폴 \$699+항공
3박5일	북경 \$799+항공
3박5일	장가계 \$799+항공
4박6일	북경/장가계 \$1849+항공
9박10일	중국일주 \$3199+항공

내륙 6박7일 동해안 3박4일 \$1970+항공 \$1200+항공

시해안 3박4일 전국 15박16일 \$1200+항공 \$4500+항공

영어 투어(2인 이상 출발)

동남아 연합투어

3박5일 방콕/파타야 \$50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999+항공

3박5일 대방 \$509+항공

3박5일 나트랑/달랏 \$509+항공

3박4일 대만 \$1049+항공

3박5일 싱가포르 \$699+항공

3박5일 북경 \$799+항공

3박5일 장가계 \$799+항공

4박6일 북경/장가계 \$1849+항공

9박10일 중국일주 \$3199+항공

TMCI 고국건강검진

경희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61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 \$990/여 \$1110

세브란스 (강남) 남 \$600/여 \$650

현대아산병원/한양대병원 가천대일병원

탑이 드리는 선물

1 대한항공 항공권 5% 할인 판매

2 USIM / eSIM 무료 증정! (30 Days)

- 한국여행-항공권-고국 건강검진 구매시 데이터 1GB+무제한 통화 USIM 또는 데이터 10GB eSIM
- 유럽 패키지 (원더풀 투어) 구매시 데이터 10GB eSIM 또는 무제한 통화 USIM

* Cell phone이 unlock된 본인에 한합니다.

인생 버킷리스트 크루즈

캐나다&뉴잉글랜드

9박 10일 | 10/8~10/17

\$1380(인) **마감** \$1680(오션 **마감**)

지중해 크루즈

12박 13일 | 10/28~11/9

\$3490(항공, 인사이드), \$3990(항공, 오션뷰)

동부투어 6월10일~7월25일 까지 월드컵 특수기간으로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관광이 가능합니다.

미동부&캐나다 5박 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출발 확정: 5/25, 6/8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출발 확정: 5/25, 6/22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3박 4일 \$899

뉴욕 1박 2일 \$399

원하는 유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시 \$100 (매일 수시 출발) 확정일: 5/28, 5/3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가능

서부투어 서부 완전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4대 캐넌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넌 5박 6일 \$990+항공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5대 캐넌, 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코스타리카 연합 4박 5일 \$1190+항공

5박 6일 \$1230+항공

출발확정: 5/18, 6/8, 6/22

마운틴 러쉬모어 크레이지호스 3박 4일 \$1040+항공

출발확정: 5/22, 7/3, 9/4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체지면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에츠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Tuesday, May 19, 2026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비출판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담 하십시오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둘 다 붙었는데 어디를 가야 하나”

UCLA vs UC버클리 UC 양대 명문 전면 비교

미국 명문 공립대학의 상징인 UC버클리와 UCLA는 한인 최상위권 학생 사이에서 “둘 다 합격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유발한다. 최근 몇 년 사이 UCLA의 학부 선호도가 급상승하면서 “이제는 UCLA 시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버클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평가 받는다. 두 학교는 같은 UC 시스템 안에 있지만 학생 문화와 전공 강점, 경제적 배경, 장학금 구조, 졸업 후 네트워크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랭킹보다 학생 성향과 미래 산업 방향을 함께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조 명문 버클리, 급성장 강자 UCLA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불리는 UC 버클리는 1868년 설립된 UC시스템의 본교다.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적 연구 성과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공립대 가운데 하나다. 반면 UCLA는 1919년 버클리 남부 분교로 출발했지만 최근 학부 선호도에서 급성장했다. 특히 US뉴스&월드리포트 대학순위와 공립대 순위에서 버클리를 앞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학원과 연구 영향력에서는 여전히 버클리의 존재감이 막강하다.

두 학교 모두 학생 수가 4만 명이 넘는 초대형 대학이다. 그러나 학생 구성과 생활 분위기에서는 차이가 있다. < 표1 >

UCLA는 상대적으로 밝고 활동적인 캠퍼스 문화가 강하다. 스포츠와 동아리 활동, 네트워킹 문화가 활발하며 날씨와 캠퍼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반면 버클리는 학구적이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정치·사회 운동 전



왼쪽부터 UCLA의 상징인 로이스홀(Royce Hall), UC버클리의 세더게이트(Sather Gate). 두 학교는 미국 공립대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한인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가운데 하나다.

AI·프리메드·장학금·동문 네트워크까지 “더 좋은 대학”보다 “더 맞는 대학” 중요

통도 깊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버클리는 늘 공부 이야기만 하는 학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특히 STEM 분야에서는 버클리의 학업 압박이 강한 편이다. 공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전공에서는 시험 평균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반대로 UCLA는 협업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학업의 활동을 균형을 추구하는 학생이 많다는 평가다.

경제적 배경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UCLA는 상대적으로 중상류층 학생 비중이 높고 남가주 출신 학생이 많다. 반면 버클리는 북가주와 해외 우수 학생, 연구 중심 학생들이 강세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학생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캠퍼스 적응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AI와 공대는 버클리, 프리메드는 UCLA?
두 캠퍼스는 전공별 강점 차이도 매우 뚜렷하다. 버클리가 압도적 강세 분야는 EECS(전기공학·컴퓨터사이언스,

AI-데이터사이언스, 수학, 통계학, 경제학, 물리학, 환경 공학이고 특히 버클리 EECS는 미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다. 구글, 애플, 메타, 오픈AI 등 실리콘 밸리 핵심 기업들과 연결성이 매우 높다. 버클리는 또 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장 빠르게 구축한 대학 가운데 하나다.

이에 비해서 UCLA만의 독보적 분야도 많다. 영화·TV·연극, 스포츠 의학, 간호학, 생명과학,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꼽을 수 있다. 특히 UCLA의 연극필름TV대학은 할리우드와 직접 연결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특히 프리메드(pre-med) 학생들 사이에서는 UCLA 선호도가 높다. 가장 큰 이유는 GPA 관리다. 의대 진학은 높은 GPA와 MCAT 성적이 핵심인데, 버클리의 STEM 수업은 학점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같은 실력이라면 UCLA에서 더 좋은 GPA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또 UCLA는 로널드 레이건

UCLA 메디컬 센터와 연결된 의료 인프라도 중요한 요소로 임상 봉사, 쉐도잉, 리서치 기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두 학교 모두 세계 최상위권인 전공도 많다. < 표2 > 그래서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지만 특히 버클리의 하스(Hass) 비즈니스 스쿨은 스타트업·벤처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 반면 UCLA는 의료·스포츠·미디어 산업과 연결성이 강하다.

두 학교의 취업 방향도 차이가 난다. 버클리는 실리콘 밸리와 연결된 AI·소프트웨어·스타트업 분야가 강하다. 창업 문화도 활발하다. 실제로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버클리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인더우먼트와 장학금 규모
두 학교 모두 공립대지만 사실상 사립 명문 수준의 재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 표3 > 학교 장학 기금으로 쓰이는 인더우먼트 펀드의 규모도 모두 70억~8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UCLA는 의료 센터와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대형 기부금을 많이 유치했다.

장병희 객원기자
▶ 2면 UC 양대 명문 전면 비교로 계속 < 표 참조 >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의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마일스톤(Milestone)이란 무엇일까요?”

‘마일스톤’은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이정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목표 없이 막막하게 공부하며 길을 잃곤 합니다. **마일스톤 학원**은 긴 학습의 여정에서 지지치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학습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진단: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첫 마일스톤
- 2 몰입: 스스로 학습의 가치를 깨닫는 성장 마일스톤
- 3 성취: 목표한 결과를 손에 쥐는 성공 마일스톤

2026년 새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Milestone Prep Academy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그 곁에는 항상 Milestone이 있겠습니다.

2026년 새 봄, 새로운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 MILESTONE PREP ACADEMY 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름 프로그램

SAT 프로그램

- 매주 DSAT Test, 개인별 Test 결과 분석
- 10~15년 이상 경력의 SAT 전문 강사 수업
- 학원 제작 SAT 교재 사용

Date: 6/22(Mon)~8/14(Fri), 8주(원하는 주 수만큼 등록 가능)
Time: (월~목) 9:30AM~2:30PM
SAT Reading/Writing(Grammar)/Math (금요일) 9:30 AM~12:00 PM, Digital SAT Test

Middle School 프로그램

Date: 6/22(Mon)~8/14(Fri), 8주
Time: (월~목) 9:30AM~2:30PM
Reading/Grammar/Math (Algebra 1) (금요일) 과목별 Weekly Test

Math 프로그램

- 20년 이상 경력의 수학 전문 강사
- 수학의 기초에서 SAT Math까지 단계별로 맥을 잡고 기초를 튼튼하게
- Pre Algebra / Algebra 1 /Geometry / Algebra 2 주 2회, 90분 수업

PSAT 프로그램

Date: 6/22(Mon)~8/14(Fri), 8주(원하는 주 수만큼 등록 가능)
Time: (월~목) 9:30AM~2:30PM
PSAT Reading/Writing(Grammar)/Math (금요일) 9:30 AM~12:00 PM, PSAT Test

English 프로그램

- 개인 Tutor/Class 가능
- Vocab & Book Club: 5~6th / 7~8th 주 2회, 90분 수업

학부모 세미나

- 미리 알고 준비하는 대학입시 - 평가요소와 입시 전략
- 학년별 여름방학 활용법

• 일시: 5/29 (금) 10 AM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면 미리 신청해 주세요.

703-870-5006
info@milestoneprepacademy.com

“120년 숙명의 자부심... AI·산학협력으로 글로벌 명문 도약”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대학평가서 기술이전 수입 4위
‘여대는 이공계 약하다’ 편견 깨

외국인 전용 한류국제대학 출범
MS·르노·몽클레어와 공동 연구
융합 과정 통해 취업 경쟁력 높여

2016년 3월, 숙명여대에 처음으로 공대생이 입학했다. 창학 110주년을 맞아 신설한 공과대학의 첫 신입생들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 동문 모임이 생길 정도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 진출이 활발하다.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과 반도체 장비 기업 임원진에도 숙명여대 출신이 포진하는 등 ‘여대는 이공계 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있다.

숙명여대는 오는 20일 창학 120주년 기념식을 연다. 숙명여대는 1906년 고종 황제의 계비인 순헌황귀비가 황실 재산을 기부해 세운, 국내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이다. 창학 120주년 슬로건은 ‘숙명의 자부심, 새로운 120년’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 새로운 미래상 도출 등을 통해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구상과 의지를 담았다.

2024년부터 숙명여대를 이끌고 있는 문시연 총장으로부터 미래 비전과 혁신 전략을 들었다. 다음은 문 총장과와의 일문일답.

-총장이 120주년 기부 캠페인의 첫 주자로 나서 1억2000만원을 기부했다.



숙명여대 총장실에서 문시연 총장이 학교 설립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1906년에 세워진 숙대는 올해 120주년을 맞는다. 장진영 기자

“지난해 9월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먼저 기부했다. 이후 동문,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이런 흐름이 학교의 재정 건전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국내 최초의 외국인 전용 단과대학(한류국제대학)이 출범했다.

“한류 덕에 많은 외국인 학생이 한국을 찾는데, 정작 한류를 제대로 공부할 대학은 몇 군데 없다. K팝·K푸드·K뷰티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학위 수요를 충족시키려 한다. ‘한류는 일시적 흐름일 뿐 학문이 아니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숙명만이 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득했다. 한류에 관심 많은 중동 등에서 유학생을 유치해 (다른 대학교) 차별화할 계획이다. 세네갈·르완

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관계를 넓히고 있다. 외국인 학생(지난해 1434명)이 2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임기 내 외국인 학생을 전체 학생의 20% 수준(약 2800명)까지 늘리고 싶다.”

-공대를 신설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대학에서 이공계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취업 시장도 굉장히 빨리 재편될 거다. 한때 각광 받던 코딩 분야에서 하루 아침에 대량 해고되는 세상이다. 흐름을 좇을 생각만 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금 인기가 높은 학문이 5년 뒤에도 그대로일지 의문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전 네이버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피서치 오영선 부회장 모두 숙명여대 영문과 출신

인데 IT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몽클레어·에릭슨 등과 인재 양성 협약을 맺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양한 기업과 접점을 넓혀왔다. 산학협력은 학생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기업엔 혁신의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 취업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기업의 공동 연구까지 이어져야 바람직하다.”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기술이전 수입(과학기술교수 1인당)이 전체 4위를 기록했다.

“최경민 화공생명공학부 교수가 창업한 ‘랩인큐브’가 지난 3월 147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금속유기골격(MOF) 소재를 생활 속 제품에 시도한 첫 기업이다. 국내 대기업이 만든 공기청정기에도 이 소재가 적용됐다. 이런 성과가 ‘여대는 이공계 경쟁력이 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대 중엔 공학 전환을 고민하는 곳도 있는데.

“여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여성 지도자를 키워낸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

-‘마이크로디그리’(12학점의 단기이수 과정)를 3년째 운영 중이다.

“학과 간의 벽을 넘는 융합 과정이다. 주전공이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쌓는 과정이라면, 마이크로디그리는 트렌드가 빨리 변화하는 분야에 필요한 힘을 더하는 과정이다. 현재 22개 과정이 운영 중인데, 가장 인기가 많은 과정

은 ‘콘텐츠 융합’으로 K드라마와 관련된 분야를 배울 수 있다. 재무빅데이터 분석·인문사회디지털융합 등도 인기가 높다.”

-학생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는 90학점을 배워야 전공으로 인정했다. 이제는 36학점만 마쳐도 자기 전공이 된다. 과거 잣대로는 ‘가볍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융합의 시대에 맞게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요즘 학생들은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학생자율 설계전공 등을 통해 스스로 융합의 길을 찾고 있다.”

-AI 교수 영입,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라이즈(RISE·현 액커) 사업에 선정되면서 AI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되는 고성능 GPU 워크스테이션 12대를 확보했다. 다만 고가의 물리적인 서버를 계속 늘리면 학교 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내 수요에 맞는 클라우드형 GPU 운영 모델 도입을 논의 중이다.”

-AI 시대 인문학·어학 교육이 위기란 우려가 높다.

“AI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인문학이다. 앞으로 AI·법·윤리 등 다양한 역량과 연결되면서 인문학은 한층 중요해질 것이다. 여학도 그렇다. 기초적인 번역은 AI가 할 수 있지만, 맥락·누앙스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부 분야가 변화하겠지만 어문학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김민상 기자

▶ 1면 UC 양대 명문 전면 비교에서 계속

반면 버클리는 연구 프로젝트와 대학원 연구비가 매우 강하다.

실제 체감 장학금은 UCLA가 최근 더 공격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재정 보조 확대 정책이 눈에 띈다. 그러나 버클리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과 연구 장학금 규모에서 매우 강력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 동문 규모와 네트워크도 달라

두 학교 모두 동문 규모가 수십 만명에 달해 UCLA는 60만 명, 버클리는 55만 명에 달한다. 한인 졸업생도 다른 UC 캠퍼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 UCLA 동문 네트워크는 방송·스포츠·의료·법조계에서 매우 강하다. 특히 남가주 산업계 전체에 퍼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버클리는 실리콘밸리와 학계 영향력이 막강하다. 스타트업 창업 문화도 강하다.<표4>

양교 모두 동문화 조직이 활발하다. 지역별 네트워크와 취업 멘토링, 장학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인 동문 네트워크도 강한 편이다. 실리콘밸리 IT 업계에는 버클리 한인 동문이 많고, LA 의료·법률·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UCLA 출신 한인 네트워크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입시 전략

입시 전략에서도 차이가 있다. 버클리는 아카데미 스파이크(뚜렷한 학문 강점)를 강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UCLA는 비교적 균형 잡힌 학생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표5> 전문가들은 “AP 개수보다 수강 과목과 전공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UCLA와 버클리 경쟁권 학생들은 AP 8~12개 이상을 수강한 경우가 많다. 특히 STEM 지원자는 AP 켈큘러스, AP 피직스, AP 케미스트리 등 핵심 과목 준비가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 어디가 더 좋은가

전문가들은 UCLA와 버클리 가운데 절대적 우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버클리는 미국 공립대 학문의 상징이다.

UCLA는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공립 명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성향이다. 연구 몰입형인가, 협업·네트워킹형인가, AI·테크 산업을 원하는가, 의료·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원하는가, 경쟁적 환경을 즐기는가 균형 있는 대학 생활을 원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 최종 선택을 결정할 기준이 되어야 한다.<표6>

항목	<표1> UCLA	UC버클리
전체 재학생	약 4만7000명	약 4만5000명
학부생 규모	약 3만2000명	약 3만3000명
대학원 비중	의대·법대 강세	박사·연구 중심 강세
아시아 학생 비율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유학생 비율	높음	높음
캠퍼스 분위기	사교적·활동적	학구적·경쟁적

전공	<표2> 상대 우세
컴퓨터사이언스	버클리
경제학	버클리
정치학	버클리
생물학	UCLA 약우세
심리학	UCLA
공학	버클리
비즈니스	버클리 하스 영향력 강세

항목	<표3> UCLA	UC버클리
인다우먼트 규모	약 80억달러 수준	약 70억달러 수준
연간 연구비	매우 큼	UC 최고 수준
장학금 확대	중산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지원 강세

요소	<표5> UCLA	UC버클리
학생 성향	균형형 선호	학문 몰입형 선호
STEM 압박	높음	매우 높음
활동 평가	리더십·스토리	학문적 깊이
캠퍼스 문화	협업형	경쟁형

학생 성향	<표6> 추천 대학
AI·컴퓨터사이언스 집중	버클리
프리미엄·생명과학	UCLA
스타트업 창업 관심	버클리
스포츠·캠퍼스 라이프	UCLA
연구 중심 학문형	버클리
엔터테인먼트·미디어	UCLA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응용 변호사

이제 이민법 전문 김응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 종교비자 (R)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병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노벨상 10개 교토대의 위기... 괴짜가 사라진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역대 최다인 946만여명을 기록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국 언론의 유일한 일본인 기자인 오누키 도모코 도쿄 특파원이 여행 등 단기 체류로는 접할 수 없는 일본인의 삶과 속마음을 생생하게 알려 드립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들을 '위대한 선생님'이 격려한다. 동상 받침대 위에 올려진 건 닌텐도의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빠끔 플라워'다. 마리오가 뛰어가는 길에 배관 속에서 튀어나와 입을 벌려 삼켜버리려는 천적이다.

“오리타 히코이치(折田彦市) 선생님은 식인 식물의 일종으로서 쿠파성(게임 속 악당의 본거지)의 수비에 힘써 막대한 공적을 남긴 분.” ‘오리타 선생님 동상’이라고 적힌 제작물 옆 기관엔 이런 설명이 적혀있다. 오리타는 교토대의 전신인 옛 제3고등학교에서 초대 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실존 인물 이름을 따온 동상 위에 다양한 캐릭터를 접목해 사람들을 웃기는 교토대만의 특별한 ‘놀이’다.

매년 2월 치러지는 교토대 입시 당일 ‘오리타 선생님 동상’에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는 큰 관심이다. 빠끔 플라워가 등장한 건 2024년의 일이었다.

교토대는 도쿄대와 같은 수준의 초 명문대다. 오리타는 ‘자유 의 학풍’이라는 교토대의 문화를 만들어낸 전설적인 교장이었고, 1940년 교내에 동상이 세워졌다. 전후 학생운동이 격렬해지며 경찰이 학내에 진압했는데, 학생들은 동상을 붉게 물들여 분노의 뜻을 표했다. ‘동상 아트’가 일상화되자 1997년 동상이 철거됐고 학생들은 그 이듬해부터 가짜 동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상식 밖의 행동이 가능한 이런 교토대의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배출하는 원동력으로 꼽히곤 한다. 일본 노벨상 자연과학분야(물리학, 의학, 생리학, 화학)의 수상자는 총 27명인데, 교토대는 가장 많은 10명을 배출했고 졸업생이 아닌 교수 등까지 포함하면 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생리학·의학상을 받은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화학상을 받은 기타가와 스스무(北川進) 역시 교토대를 나왔다.

하지만 최근 “자유로운 교토대의 문



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카이 사토시(酒井敏-69) 교토대 명예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인공지능(AI)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인 만큼 ‘괴짜’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며 “AI는 기존 지식을 모집한 집합체이기 때문에, AI가 작성한 서류는 재밌을 리가 없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AI가 높은 점수를 준 서류를 탈락시키면 된다”고 말한다.

“이상한 짓 1%서 노벨상 나온다”

별종 인정하는 자유로운 학풍

버블붕괴 뒤 괴짜 대신 모범생 늘어

선택과 집중... 기초과학 연구는 감소

일본인 피인용 논문 수 4위→13위

“일본, 앞으로 노벨상 받기 힘들수도”

교토대의 ‘괴짜 DNA’를 지키겠다고 ‘교다이(京大) 헨진 강좌(교토대 괴짜 강좌)’라는 특이한 강의를 시작해 ‘남다른’의 중요성 호소에 나섰다. ‘헨진’은 이상한 사람, 괴짜, 별종이란 의미의 일본어다.

교토대 산학협력 정보 플랫폼 ‘필로(Philo)’에 따르면, 사카이는 근처에 바다가 있는 시즈오카(静岡)의 제제소 집안에서 자랐다. 바다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선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사카이는 이곳에서 놀곤 했다. 독서는 싫어했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수학 공식을 스스로 도출하게 되며 성적이 확 올라갔고, 자유로운 학풍이 좋아 교토대 이학부에 진학했다. 그 후 해양물리학 전문가로서 2023년까지 40년 가가

이 교토대에 재직했다. 교내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사카이가 변화를 감지한 건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였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헤매던 일본 정·재계에선 ‘선택과 집중’이 키워드가 됐다.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선택적으로 사용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2004년 교토대 등 국립대가 법인화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기초 연구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앞으로 당분간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거의 안 나올 것 같다.” 요즘 일본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노벨상 수상을 위한 연구엔 수십 년이 걸리는데, 선택과 집중 정책 추진 결과 기초 연구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사카이는 교

이 교토대에 재직했다. 교내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당분간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거의 안 나올 것 같다.”

요즘 일본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노벨상 수상을 위한 연구엔 수십 년이 걸리는데, 선택과 집중 정책 추진 결과 기초 연구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과학기술지표 2025’에 따르면 피인용 상위 10% 이내 일본 연구자의 논문 수는 약 20년 전 세계 4위에서 13위로 추락했고, 한국의 9위보다 낮았다.

사카이는 학생들의 변화에도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시를 받은 것만 성실히 따르는 ‘모범생’이 늘었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자신감을 잃어 상담을 받

는 학생이 많아졌다. 특이한 사람이 특이하게 살 수 없게 됐다. ‘괴짜는 괴짜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전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는 2017년 당시 교토대 총장을 맡고 있던 야마기와 주이치(山極寿一-72)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괴짜 강좌를 시작했다. 야마기와는 일본 고릴라 연구의 1인자로, 고릴라와 10개월 동안 함께 살며 ‘우~’ 같은 ‘고릴라어’만 듣다보니 일본어를 잊은 적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강의를 책으로 엮은 『교다이 헨진 강좌』에서 야마기와는 “괴짜가 아니면 이미 알려진 것과 다른 발상을 할 수 없다. 저쪽(고릴라)의 세계에 꼭 빠져, 저쪽에서 이쪽(인간의 세계)을 바라보는 게 제가 해온 방법”이라고 말한다.

강의의 공통된 개념은 ‘상식을 의심하라’다. “안전과 안심이 인류를 멸망시킨다” “인간의 부족함으로 AI를 뛰어넘는다”... 지난 3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열린 강의의 제목들이다. 사카이는 “이상한 일을 하면 99%는 ‘그냥 이상한 짓’으로 끝나겠지만, 나머지 1%에서 무언가를 발굴할 수도 있고 거기에 ‘노벨상급 소재’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2024년 2월 일본 교토대 입시 당일 세워진 오리타 선생님 동상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빠끔 플라워가 등장했다. 교토대 괴짜 강좌를 만든 명예교수 겸 해양물리학 전문가 사카이 사토시. [지itung신, 사진 교다이오리지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www.naturadent.net

가치를 올려 판매하는 부동산 비키리

집을 고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 수리비 선지출 없음 (클로징 정산)
- ✓ Before / After 전략으로 집값 상승
- ✓ 빠르고 안전한 판매

집값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Before

After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감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남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대입 들여다보기

빈센트 김 카운슬러 어드미션 마스터즈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의 입학 문은 해마다 좁아지고 있다. 2025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에서 합격률은 7%를 기록했다. 5만 3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극소수만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최근 5년간 합격률은 줄곧 9%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만 명의 간절한 꿈이 교차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역사적 추이를 살펴보면 그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1993년 노스웨스턴의 합격률은 42%에 달했다. 지원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합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2009년에도 합격률은 27%로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문이 넓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사이에 합격률은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1993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입학 경쟁은 5배 이상 치열해진 셈이다. 이런 살벌한 경쟁 속에서 입시 전략가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얼리 디시전(ED, 조기 전형)이다.

2025년 가을학기 ED 지원자 6000명 중 1200명이 합격해 2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정시 지원(RD) 합격률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학교가 신입생의 약 50%를 조기 전형에서 선발한다는 사실이다. 즉, 합격자 두 명 중 한 명은 이미 12월에 결정된다는 뜻이다.

ED는 단순히 합격률이 높다는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측에 '노스웨스턴을 제1지망으로 간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입학처는 지원자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ED 지원 자체가 그 관심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된다. 물론 ED는 합격 시 반드시 진학해야 하는 구속력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노스웨스턴 입학을 강하게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전략적으로 ED를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선택지임은 분

노스웨스턴 합격률 7% 조기 전형이 성패 좌우

명하다. 합격생들의 학업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신입생의 94%는 고등학교 졸업 성적이 상위 10% 이내, 98%는 상위 25%에 포함됐다. 사실상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로 채워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표준시험의 경우 학교는 현재 테스트 옵셔널(Test-optional)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합격생의 약 80%는 SAT 또는 ACT 점수를 자발적으로 제출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높은 시험 점수가 여전히 입학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점수를 제출한 합격생들의 SAT 중간 50% 구간은 1500~1560점, ACT는 33~35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노스웨스턴 학부생은 전국 50개 주와 100개국 이상에서 모여들고 있으며,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만 1만 2000개교 이상에 달한다.

지역별 경쟁 구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처럼 지원자가 밀집된 주 출신은 그만큼 내부 경쟁도 치열하다. 반면 알래스카, 노스다코타, 몬태나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 출신 학생들은 지리적 다양성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노스웨스턴은 입학 사정에서 수업 난이도, 학년 석차, GPA, 에세이, 추천서, 과외활동, 인성 및 개인적 자질, 특별한 재능 등 8가지 요소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험 점수, 동문 관계(레거시), 1세

대 대학생 여부, 봉사활동, 근로 경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학교 측은 "지원자를 정량적 기준이 아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학생의 성취와 역량은 각자의 학교와 지역적 환경 속에서 맥락적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본다는 의미다.

등록률(yield rate)은 약 56%로 듀크대(60%),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48%), 라이스대(46%) 등 주요 경쟁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격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최종적으로 노스웨스턴을 선택한다는 수치는 학교의 위상과 매력을 가능하게 한다.

숫자는 냉정하다. 7%의 합격률 앞에서 많은 학생이 좌절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 문을 두드리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가 결국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 노스웨스턴 입학처가 해마다 강조하는 메시지가이기도 하다.

에듀 포스팅

세라 박 교장 글로벌리더십 중·고등학교

최근 몇 달 사이,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한때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던 이 기업들에서 수만 명 단위의 인력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특히 필자는 이 소식을 단순히 '경제 뉴스'로 보기보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좋은 대학을 나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기업에 들어가 기꺼이 그들이 들었을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 해고라는 사건이 단순한 직장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경험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누군가는 깊은 실의에 빠질 것이고, 누군가는 현실적인 이유로 급하게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 이 순간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복구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우리는 아이가 실패할 상황 자체를 줄이려 한다. 대신 선택지를 정리해 주고,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한 길을 안내한다. 그러나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판단력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 없는 환경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실수를 했다면 중요한 것은 "이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이다. 이 질문 하나가 아이의 사고 구조를 실

수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험의 데이터로 전환시킬 수 있다.

▶반복주의를 칭찬하는 순간
사업을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우리는 종종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준다. 그러나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킴 페렐은 성공의 핵심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도전을 미루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할 언어는 "잘했어" 보다 "시도한 것이 훌륭하다"가 되어야 한다. 결과 중심의 칭찬은 아이를 안전지대에 묶어 두고, 과정 중심의 인정은 아이를 성장지대로 이끌게 된다.

▶뚝뚝하게 도움 요청하는 것도 실력

또 하나 부모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독립성'에 대한 오해다. 많은 부모가 '혼자서 해내는 아이'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연결하는 사람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은 질문하는 연습과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멘토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가 모든 답을 즉각 주는 순간 아이의 성장 속도는 오히려 느려진다.

▶질문을 바꿔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 아이의 사고는 완전히 달라진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은 아이를 점점 더 위축시키고, 선택을 좁히게 만든다. 반대

성장 데이터 되는 실수 질문이 자녀 미래 바뀌

로 "이 일이 잘 풀린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라는 질문은 아이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행동을 이끌어낸다. 부모가 반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줄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탐색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결국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질문의 차이인 경우가 많다.

▶성장 마인드 키우기
아이는 자신이 익숙한 곳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머무를 때 더 크게 자란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불안에서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통과하면서도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기준과 질문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 이 환경에서 나는 배우고 있는가?" 많은 학생이 익숙함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문다. 하지만 성장 없는 지속은 결국 정체로 이어진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지만, 동시에 도전의 기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편한가?"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

WWW.PARKWOOLAW.COM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 (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 (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비자(F, H, E, L, R), 이민 신청, NIW, 시민권, 추방 재판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전)
- VA, NY 변호사 자격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테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5월 스페셜 SALE

Special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250 1+1**

홍삼 로얄 앰플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160 1+1**

홍삼 로얄 본액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신체기능강화, 면역력향상, 신진대사촉진

신장배양근 녹용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칩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양성/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엔 마스크

건강기능식품

medifree 코팅식이섬유 레벤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라겐 피부 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당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가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가장성 뇌기능 장애 및 만성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홍삼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양성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순도 100% 천연 항생제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1oz \$45, 4oz \$125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자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있는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클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클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백하게~

엘라스티프로 찰랑하게~

Umexen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액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놀한 제도아리 / 재첩액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천연 자죽염 치약

건강탄산입욕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자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널 보며 날 간다

우린 서로의 '거울'

‘피겨 트윈스’ 언니 김유재(왼쪽)와 동생 김유성. 슬림한 체형부터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목소리까지 똑 닮았다. 일본 매체 디앤서가 “외형은 물론 실력도 구분 가지 않는다”고 놀라워할 정도다. 필살기도 트리플 악셀로 똑같다. 이상조 기자

이토록 완벽하게 닮은 경쟁자이자 동반자가 있을까. 6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 김유재와 김유성(17)은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미래다. 2025~26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동생 김유성이 5차 대회, 언니 김유재가 6차 대회에서 우승했다.

최근 과천빙상장에서 만난 자매는 슬림한 체형부터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차분한 목소리까지 똑 닮아 햇갈렸다. 둘은 마치 거울을 마주 본 듯한 착각을 일으킬 것이다. 김유재는 “제가 키가 1cm 더 크다(1m61cm). 눈썹미가 좋은 분들은 알아보신다”며 웃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특강으로 피겨를 시작한 자매는 대학 시절 드럼과 베이스기타를 연주한 아버지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오아시스 등 올드팝을 들으며 음악적 감수성을 키웠다. 유성은 “비용도, 격정도 두 배로 드는데 부모님이 항상 믿어주시며 후원사 KB도 톡톡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다.

둘은 왼손잡이에 좋아하는 음식(떡볶이), 좋아하는 프로야구팀(두산)까지 같다. 이상형도 똑같이 영화 <왕과사>의 단종 역을 맡은 배우 박지훈이다. 김연아의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영상을 수천 번도 더 돌려봤다는 둘은 태릉빙상장에서 마주친 김연아에게 사인을 받을 때 너무 떨려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유재는 “다시 김연아를 만나면 큰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묻고 싶다”고 했고, 유성은 “우리 나이로 돌아간다면 무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쌍둥이는 “알리샤 리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필살기도 ‘트리플 악셀’로 똑같다. 전방을 향해 힘껏 뛰어올라 공중에서 3바퀴 반을 돌고 착지하는 이 기술은 부상 위험과 두려움이 크지만 그만큼 가산점도 크다. 한국에서 ISU 공인 대회

피겨 쌍둥이 자매 김유재·김유성 외형부터 필살기 ‘트릭’까지 똑 닮아 “지난 실수 연연 않는 동생 부러워” “언니의 기술적 완성도 더 뛰어나”

올 8월 나란히 시니어 챌린저 출전에서 이 기술을 성공한 선수는 유영 이후 두 자매 뿐이다.

유재가 2023년 캘거리에서 먼저 완벽하게 랜딩했고, 이듬해 언니의 조언을 받은 유성이 방콕에서 성공했다. 쌍둥이는 최근 1년 새 키가 4cm씩 부쩍 자랐다. 기계체조 덩블링을 하며 달라진 점프 축과 타이밍 변화에 적응했다. 현재 트리플 악셀 성공률은 10번 중 7번 정도에 달할 만큼 안정 궤도에 올랐다.

일란성 쌍둥이의 관계는 일반 형제 자매와는 다르다. 나이 차도, 체격 차도, 능력 차도 없어 모두가 비교하며 한쪽의 성공은 다른 쪽의 실패로 여겨진

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고 싶은 상대이기도 하다. 자매는 이 복잡한 관계를 에너지로 쓰는 듯하다. 유재는 “지나간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 유성의 여유로움이 부럽다”고 했고 유성은 “유재의 기술적 완성도가 더 뛰어나다”고 했다.

유재는 “유성은 제 스케이트의 한쪽 같아요. 두 개가 온전히 맞춰져야 빙판을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함께어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방이 모자란 건 아닌데도, 둘이 같은 방을 쓰며 24시간 내내 붙어 산다니 빈말은 아닌 것 같다. 김유성은 “유재가 파란 하늘이라면 전 땅 같아요. 서로가 존재해야 비로소 하나의 세상이 완성되는 것처럼요”라고 했다. 휴대폰에 서로의 이름을 ‘내 짝꿍’으로 저장한 자매는 성적이 엇갈리는 날에는 거창한 위로 대신 그저 곁을 지켜준다.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동반 진출해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

했다. 특히 갈라쇼에서 거울을 마주보듯 펼친 ‘미러링’ 페어 연기는 큰 화제가 됐다. 유재는 “팬들이 ‘데칼코마니 같다’고 하더라”며 웃었다.

올해 8월경 ISU 시니어 챌린저 대회에 출전해 성인 무대를 노크할 예정이다. 김유재는 “약간 강렬하고 웅장하면서 의상도 성숙한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유성은 “기존의 서정적인 선을 대신 좀 더 파격적인 분위기에 도전하고 있다”고 힌트를 줬다.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 걸그룹 아이브, 아이릿의 댄스도 연습한다.

밀라노 올림픽 대표 선발전 2, 3위에 올랐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 출전하지 못한 쌍둥이의 시선은 2030년 알프스 올림픽을 향해 있다. 둘은 “피겨 역사상 여자 싱글에서 쌍둥이가 나선 적은 없더라”며 “우리 둘이 함께 올림픽 무대에 선다면, 그보다 특별하고 경이로운 순간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새집 구입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밀하게 봐드립니다.

구입전 꼭 조언을 얻으셔야 합니다.

새로 집 지으실 분 건축업체 및 시공업체 소개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리스팅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NEW HOME


Fairlakes, VA


Reston, VA


Ellicott City, MD


Falls Church, VA


Ashburn, VA


Bethesda, MD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CAR WASH

찾아드리고 매매해 드립니다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새차장 리스팅 완비

바이오/생명공학 기업

CGMP 시설 및 LAB

협상/구입해드립니다

맥도날드 건물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임대수입 얻으실분 찾습니다

사무실, 병원, 창고, 공장 / 랜드 / 구입
찾아드리고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서류 검토와 유리한 협상 전문

수입 꾸준한 사업체 매물 있습니다
메니지먼트만하면서 수입 좋은 매물 있습니다
50만불에서 3백만불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리얼티원그룹 수나이다팀 대표
“내 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 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 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보험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봐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5월
구
인
광
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청빙공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모십니다.

- 유스그룹 사역자**
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생
- 아동부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아동사역 소명 있는 분
- 찬양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찬양 사역 소명 있는 분

합법 체류자로 사진 첨부 이력서 stmkumc@gmail.com으로 4월 15일까지 송부바랍니다.

운전기사님 모십니다

본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겨주실 운전기사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 모집분야: 운전기사 1명
- 주요사역: 교회차량운행(15인승)
- 사역내용: 한달 4~5회(매 주일 예배 전후)
- 자격요건: 취업 결격사유 없는 운전면허소유자
- 사례: 월 \$800.00
- 접수방법: 이메일 wbs7540@gmail.com (운전면허증사본, 5년간 운전기록)
- 접수마감: 4월 15일 5:00 pm

알링턴한인교회

2425 N. Glebe Rd., Arlington, VA 22207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저희 회사는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회사로 냉장·냉동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office@gmail.com

* 지원 방법은 이메일이나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한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름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면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팬티/등산바지/신사구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함께 세일즈 하실 팀원 구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 LED 교체 프로그램
-메릴랜드 BGE, PEPCO 서비스 지역
-기본적인 영어소통 가능자
-Sales Training 제공 및 Transportation 지원 가능
-연 10만불 이상충분히 가능
문의: 410-599-7000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구인

한식당 해반(HYEBAN)에서 직원 모집
-주방 쿡/헬퍼/웨이츄리스 (숙식제공)
Tel: 443-420-3096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문의: 703-447-4683
E-mail: Sdmech.office@gmail.com

엘리컷시티 한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리스 (풀/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443-243-8429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중고 매매/기타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버트스빌 싱글홈 1층 렌트 (콜롬비아에서 15분 거리)
방2, 화1.5, 욕실, 주방, 프리 파킹,
유포 \$1,900
443-983-8100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방 렌트
Arundel Mills Live Casino 뒷편
프라이빗 부엌, 세탁실, 인터넷, 유포,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금연 필수, 남자분 환영
804-381-1552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 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부동산 매매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사업체 매매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월 1만5천 순수익
-매매가 15만+ 인벤토리
-메니지먼트 가능
-피터스버그, VA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고정 단골 손님 많음
-월세 \$2500, 월 순수익 \$6천 이상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40년 성업중인 테일러 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쿠팡,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라,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 sf
문의에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쿠팡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쿠팡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퀘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공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 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2014a@gmail.com

첼트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경력 무관
-이중 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건강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account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ruit.com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 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무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 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함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할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문 한식

해반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 주방 쿡 / 헬퍼
- 웨이츄리스
- 숙식 제공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매매

40년 성업중인 테일러 샵

- ★ 은퇴관계 매매
- ★ 좋은 조건
- ★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문의: 전화 or 문자

직원 구함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패어팩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중앙일보

리셉서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universa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형, 유급휴가 \$25.00/hr
▶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트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서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서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페어팩스 Sushi Friends Hashi 직원 구함
니다.
-서버 (영어 필수)
-스시 헬퍼
-경험자 페이우대
-풀타임, 파트타임
703-628-9168 (문자 요망)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트타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엘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트타임 엘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기타 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 하실분 구함
-여성분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가능)
-스테이프, VA
문의: 540-368-9699

경험있으신 간병인 구합니다. 영어약간
시간당 \$25, 타이슨스코너
202-860-7680

가사도우미 급구 - 장기 근무 환영
요리·세탁·청소 등 기본 가사
오후 12시~7시
McLean 깨끗한 가정집
안정적 장기근무 / 대우 좋음
연락: 703-795-1896

밀워크 캐비넷 공장에서 목수 구합니다.
덜레스 공장 근처 (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애견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 문의: 571-660-8182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 703-220-1400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센터빌 Faircrest 타운홈 렌트 \$3,200
방3, 화2.5, 차고2, 콜린 파월초, 마루, 리모
델링, 펫가능, 66/28/286/29/50
교통요지
▶ 571-239-6054 (문자)

센터빌 싱글홈 지하전체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모두 독립적임, 주방, 세탁설비 완비,
올 리모델링, 주차공간 충분, 펫 가능
571-214-0404

페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
이트한 부엌 (그레닛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
킹 다수, 교통 편리
▶ 703-477-3114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000
방2, 화2, 나무 마루, Granite Counter Top,
탁트인 구조,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넓은 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 콘도, 롯데 마
트 근처, 교통 편리
▶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방 렌트

게인스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워크아웃, 방2, 풀베스, 리모델링된 주방,
새 세탁기/건조기, 새 페인트, 새 플로어,
여성분 환영
703-501-4478

애난데일 INOVA 뒤 타운홈 지하 렌트
방1, 화1, 세탁실, 가구 일체, 유포 \$800
6월초 입주, 직장인 여성분 환영
703-350-1986

애난데일 워름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개인 주차
571-232-6052

헤이마켓 도미니언 벨리 리저스 골프장안에
있는 싱글홈 2층 전체 렌트
방1, 리빙룸, 풀베스, 골프장 회원 가능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516-242-8466

애난데일 방하나 렌트합니다.
간단 취사, 유포, 가구 포함

703-677-1889

센터빌 (New Braddock Road) 타운홈 방하
나 렌트,
남자분 환영, 저녁 6시 이후 전화요망
703-606-005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방하나 렌트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욕실 별도,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30-7121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 방, 화장실, 마루, 파
킹, WIFI, 학생/여성분 환영
571-239-6054 (문자)

애난데일 싱글홈 방 렌트,
495, 노바 & 조지메이슨 6분, 가구 일체,
인터넷, 금연자, 여자분 환영, 주차 2칸
571-205-0903

로튼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전체 렌트
방2, 거실, 부엌, 화, 세, 1-95 1마일 거리, 가
족 환영, 출입문 별도
703-774-4939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방
고 조용한 뒷마당,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K마켓 뒤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 2칸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하나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 전체 렌
트, 앤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 방 임대 \$700 (유포)
문의: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 지하 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 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애난데일 오피스 매매 \$280,000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
스, 교통 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 703-813-8949

1. 페어팩스 뉴타운 홈 매매
2. Langley high school 학군 지역
주택 매매
(703) 677-1889

1. 센터빌 중장교 회 근처 싱글 \$1,050,000
방3, 화3, 5 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55,000
방7, 화3.5, 워크아웃 부엌, 차고 2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튼 럭셔리 타운 \$850,000
방3, 화3.5, 차고 3
▶ 703-489-6926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1. 첼들리 하이 싱글 \$1,379,000
방4, 화4.5, 차고2, 큰덕, 최고 학군 (포플라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GIVING TREE PET RESORT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 여행갈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용해 보세요!

Room

- 아늑한 럭셔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 2호점 (폴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www.givingtreepetresort.com

*3월 15일까지 10% 글루밍 세일 및 액세서리 선물 등!!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1

트리초, 락키런 미들) 새 지붕 및HVAC 새 페인트, 주방 가전 업데이트, 바닥 업그레이드, 잘 관리된 집
2. 헌돈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3. 센터빌 스톤케이트 콘도 \$390,000
방2, 화2, 콜린 파워츠, 센터빌고, 교통중심
▶571-239-6054

1. 패어팩스 스톤케이트 콘도 \$438,000
방2, 화2, 차고1, 3층 타운형 콘도, 학군(콜린 파워츠) 좋고, 교통 & 생활 편리
2. 애난데일 싱글홈 \$700,000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땅의 집, 생활 가능하나 As-Is Condition으로 매매
3. 비엔나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703-625-9909

1. 우드브릿지 타운홈 \$560,000
방4, 화3.5 2021년 지은 새단지, 탁 트인 밝고 환한 구조, 나무 마루, 워크아웃 베이 스펀트, 고급 부엌(업그레이드된 Granite Countertop & SS Appliance), 넓은 텍과 펜스
2. 센터빌 타운홈 \$500,000
엔드 유닛, 게라지 타운 하우스, 집 전체 리모델링, 탁 트인 고급 부엌과 새 주방용구, 새 지붕, 새 창문, 새 나무마루, 새 HVAC, 새 페인트, 남향 밝은 텍과 펜스
3. 클립튼 콘도 \$379,000
호수를 품고 있는 멋진 단지, 방2, 화2, 완전 히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703-813-8949

1. 알링턴 싱글홈 \$2,099,000
방5, 화6, 4,275sf, 2026년 신축 하우스
2. 메나사스 싱글홈 \$840,000
방5, 화3.5, UVA PG 메디컬 센터 근처
3. 패어팩스 싱글홈 \$930,000
방4, 화3, 3038sf, 우순하이스쿨 도보거리, 집 전체 리모델링
▶703-486-6082

1.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1+Den, 굿 로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 텍,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2. 센터빌 타운 \$680,000
방4, 화2.5, 차고2, End Unit
3. 패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4.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차고1
▶703-919-0472

1.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 코부근
2. 센터빌 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703-231-5572

1. 엘리트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2. 포토크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크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사업체 매매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 월 1만5천 손수익
- 매매가 15만 + 인벤토리
- 메니지먼트 가능
- 피터스버그, VA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 고정 단골 손님 많음
- 월세 \$2500, 월 손수익 \$6천 이상
-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40년 상업중인 테일러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관티코 VA, 군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sf \$1.1M
2. 패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sf
임대 완료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sf, 1층 대로변, 포토크 야드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매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스테포드)
아웃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문의 :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웃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차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곳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뷰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케어 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6/08 - 6/12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밀워키 캐비닛 공장서 목수 구인
덜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JGL 건설 회사
하청업이 25년 이상 숙련된 분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TOR INC.
자봉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사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텍,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의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어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페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 서비스 지역 VA, MD, DC
- 지원 방법:
E-mail: Sdmec.h.office@gmail.com
Phone: 703-447-4683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더텍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 드레스 & 텍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테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상무,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등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웍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홈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
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이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
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 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
MD fire 소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테크 등
▶571-594-4080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Yami PHOTO STUDIO

Passport Photos Family Photos
Maternity Photos Wedding Photos

Photos & Video For Any Event!

Call: 513-570-7017
7023 Little River Turnpike #340, Annandale, VA 22003

JGL Construction Inc.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담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o be fed up with (someone or something) ; 질리다 물리다

(Alice and Susy are ready to leave the house~)

앨리스와 수지가 집 떠날 준비를 끝내고~)

Alice: Hold on, I can't find my keys.
앨리스: 잠깐만. 자동차키를 못 찾겠어.
Susy: When did you have them last?
수지: 마지막에 갖고 있던 게 언제야?
Alice: I'm not sure.
앨리스: 잘 모르겠어.
Susy: You probably locked them in your car again.
수지: 너 또 차에다 두고 잠겼을 거야.
Alice: That's possible but I don't think so, 앨리스: 그

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엔 아니야.
Susy: Where is your spare key?
수지: 비상용 키는 어디 있어?
Alice: I wish I knew, I can't find it either.
앨리스: 나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것도 못 찾겠어.
Susy: I've had it with you! Every time I go somewhere with you we're late.
수지: 너한테 질렸다! 너하고 어디 갈 때마다 꼭 늦

어요.
Alice: Putting me down won't help.
앨리스: 날 창피 준다고 키가 나오니.
Susy: I'm fed up with looking for your keys. Let's take my car.
수지: 네 자동차 키 찾는 것도 지겹다. 내 차로 가자.
.....
기억할만한 표현

▶ hold on : 기다리세요.
"Could you hold in please? I'll transfer you."(잠시 기다리시겠어요? 전화를 돌려드릴게요.)
▶ (one) has had it with (someone) : 더 이상 못 참다.
"She's had it with her husband so I think she's going to ask him for a divorce."(그녀는 남편에게 질렸다. 내 생각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
▶ put (someone) down : (누구에게) 창피를 주다 (또는 put down someone).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열쇠

(1)치료나 건강을 위하여 온몸을 드러내고 햇빛을 쬐 (3)간 곳이나 방향을 알지 못함. □방□ □ (5)미처 어찌할 수 없이 매우 급작스러운 사이. ~에 생긴 일 (8)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10)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회□ (11)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두 ~ 가까이 되는 당산나무 (12)연행이 어렵거나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 아무렇게나 날림으로 하는 일 (13)가슴뼈 아래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15)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떨어져 있는 빈터 (16)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내는 소리 (17)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나중에 난 사람 (18)성인이 되어 혼례를 치르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며 제사를 지내는 등의 일. □혼□□ (20)신문, 잡지 따위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냄 (22)여러 사람이 뒤엉켜 함부로 떠들거나 덤벼 뒤죽박죽이 된 곳 (24)개와 원숭이의 사이.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 견□□□ (25)쇠가죽에서 벗겨 낸 질긴 고기

세로열쇠

(1)기온, 습도, 기압 따위가 하루 동안에 변화하는 차이 (2)오래 병상에 누워 지내는 환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하는 병 (3)금의 줄과 줄 사이 (4)쇠를 먹고 산다는 상상의 동물. 굴, 전복, 조개 따위를 잡아먹어 양식에 피해를 주는 별 모양의 바다생물. □가□□ (6)직위가 낮은 병사 (7)이 세상을 떠나 극락세계에 가서 다시 태어남. 왕□□□ (9)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 시장에서 자릿세를 걷는 ~ 조직이 있다 (10)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 신분이 높거나 권력이나 명예 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 (13)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뻔함. □약□□ (14)먹은 음식물을 삭이는 일을 돕거나 촉진하는 약제 (15)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16)이 세상에서 이룩되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이상적 사회. □□낙□ (19)검붉은 액체 조미료 (21)산이나 들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22)층계, 다리의 가장자리에 세우는 구조물 (23)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시각장애인

스도쿠

	7	9	4	8	2	3		
		6	3		5		7	8
	8	3	9		7	1	4	
			5	2				
3		2	6		9	5		
6				4	8			9
	4	5	2	3		8		
9		8		5	1			
			8		4		5	7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7	5	9	4	6	8	1	3	2
3	2	4	1	5	7	8	9	6
1	6	8	9	3	2	5	4	7
6	3	2	8	4	1	7	5	9
4	8	5	6	7	9	2	1	3
9	1	7	3	2	5	4	6	8
2	4	1	7	9	6	3	8	5
8	7	6	5	1	3	9	2	4
5	9	3	2	8	4	6	7	1

해	산	수		간	이	풍	간	
수		굴	윤	구		하		해
간	이		간		이	유	굴	간
	하	하		이	해	이		하
하	구		유		수		이	유
는		하	하	하		를	하	
유	해	이	이		유		유	이
유		이		간	를	유		간
	유	를	유	유		는	유	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주거용 RV파크** **기타**

연순익 \$35만
65스팟 정가거주 임대단지
운영쉬움 (청소/인력-격정NO)
입지부시 대통령 본가 미들랜드
가\$2.6M, 오피스/직판/SBA가
텍사스 Serious Buyers Only,
mbrvparkllc@gmail.com
문의Text (214)284-0804

매매

10년에 한번 나오는
돈버는 세탁소
중가주 Santa Cruz
가격 \$869,000+Inv.
작년 연매상 \$920,000
월넛 \$40,000 이상
매상은 계속 증가중
셔츠 5.95, 바지 15
투피스 31.45 스웨터 16.75
***2년후 1마일내
1200유닛하우스 들어옴
AJ Singh(영어)408-646-1050
주인 (Kim) 831-476-4589

구인

한식 쿡 구함
중식 쿡 구함
알래스카-숙식제공
(907)456-2060
(907)888-6666

남성용품 20년
미전국도매상
Gas Station, 7-eleven
공장도 가격, 타주직송
Self제작도움
(818)533-478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중앙일보 온라인 쇼핑몰 **5월 가정의달** **특별세일**

5/31까지 무료 배송 (Free Shipping)

타이거 사카커피 무설탕 30/50/100 스틱
사카커피 3 Packs (30 sticks) ~~\$36.97~~ **\$30.00**

프랑스 고급화장품 센티알리스 30ml
[Made in France] 프리미엄 세럼 ~~\$430~~ **\$104**

당뇨, 비만, 총치 안심하고 맛있게 즐기세요
모공 축소, 콜라겐 생성, 손상된 피부 복원, 홍조, 건조에 탁월한 효과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L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육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육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WesternAve.#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